

#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Summer 2012  
Vol.05





#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Summer 2012  
Vol.05



부산 문현동 안동네 / 박희진



# Contents

Vol. 05  
Summer 2012



**Photo Essay** 5 포토에세이 삶, 그리고...

**Cover Story**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말하다  
14 기념비적 건축물? 문제는 콘텐츠!  
18 북항재개발과 오페라하우스  
22 부산, 오페라하우스 VS 국립극장  
27 롯데 1,000억, 문화후원인가 개발이익환수인가?  
30 기획좌담 '부산과 오페라하우스'

**Cartoon** 36 카툰 장전커넥션\_청춘을 누가 막걸리

**Criticism & Review** Hot Review  
38 부산의 국제문화예술축제를 되돌아보다  
42 부산국제무용제, 스펙터클에서 퍼포먼스로

Close Review 장르별 비평  
46 미술 리얼리즘의 귀환:부산사진계의 두 거목을 만나다  
50 생활문화 변화를 시도하는 대학축제  
54 문학 · 출판 기억과 향유, 그리고 지속하는 문화운동으로서  
문학관을 생각하며 - 요산문학관의 경우  
58 영화 제 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참관기 - 변화는 시작되었다  
62 연극 해석의 확장성 - 극단 달랑 "10F"를 관극하고  
66 건축 구덕교회  
70 음악 2012 통영국제음악제 관람기 - '프린지 공연'을 중심으로

**Culture +** +사람  
76 화제의 예술인 부산문화는 호주머니 속에 있다  
81 젊은 그대 거리의 예술가 - 구헌주  
86 +공간 또따또가 탐방  
90 +네트워크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정여행  
94 +세계문화 드라마틱한 홍콩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

98 부산문화재단 NOW  
100 편집위원 칼럼 맥주의 본질은 거품이다



## 삶, 그리고... 문현동 안동네

사진/글 박희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동주대학교 방송영상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년 첫 개인전 '거울속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10회의 개인전과 90여회의 단체전에 참가하였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실천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기획가로 자리 잡고 있다.





동서고가부두길, 번영로로 향하는 도시고속도로  
황령산터널과 전포동, 서면 그리고 부산역으로 달려가는 넓은 길

부산의 교통요지 중 하나인 문현동 교차로를 돌아 황령산 자락으로 올라가면 문현동과 전포동을 경계 짓는 전포고개에 이른다. 부산 남구 문현동 산23-1번지 일대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돌산마을, 황령마을로 불렀지만 외국인들은 주로 '문현동 안동네'로 부른다. 5만5천㎡ 면적 안에 무덤 80여기의 공동묘지와 함께 무허가 목조 및 슬레이트 건물 250여 채가 모여 있는 '문현동 안동네'는 부산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으로 자원봉사자 포함 230여명이 참여하여 50여점의 벽화를 그리면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주거환경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1980년대 초, 키가 큰 나무들 사이에 무허가 주택을 만들어도 멀리서 눈에 띄지 않아 단속을 피할 수 있었고, 근처 미군들의 군수물자에서 버려진 폐상자와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판잣집들이 '문현동 안동네'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거친 시멘트의 흔적과 웅기종기 모여 있는 블록집들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슬레이트 지붕들.....



그 시절 자생적인 주거촌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도 마주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골목길,  
허리 굽혀 들어가기 힘들 만큼 낮고 작은 대문들



군데군데 공동묘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골목과 마당에는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도시재생을 비롯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한때 ‘공공디자인대상’ 주거환경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던 ‘문현동 안동네’, 과연 그곳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과 생활은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지기 전과 벽화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난 이후 현재까지 무엇이 달라졌을까? 5년 전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현동 안동네’ 담벼락의 벽화는 또 다른 서글픈 모습의 흔적으로 퇴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 Cover Story

###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말하다

기념비적 건축물? 문제는 콘텐츠! | 북항재개발과 오페라하우스 | 부산, 오페라하우스 VS 국립극장  
롯데 1,000억, 문화후원인가 개발이익환수인가? | 기획좌담 '부산과 오페라하우스'



## 기념비적 건축물? 문제는 콘텐츠!

강동수

소설가 · 국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지금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논의로 부산의 공연예술계가 후끈한 모양이다. 누군가는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면 부산의 음악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급성장하리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를 내놓는다. 또 누군가는 새로 지어질 오페라하우스가 시드니나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처럼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산시의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기왕에 있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다 부산국립극악원, 영화의전당이 새로 지어졌고 추진 중인 부산국립극장의 건설 재원을 국비로 따오고, 거기에서 오페라하우스까지 완공되면 부산의 공연 인프라가 완결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한다.

사시사철 음악과 영상, 연극이 화려한 무대에 흘러넘치는 예술의 도시, 배를 타고 들어오면 산뜻하게 재개발된 북항에 꿈처럼 화려하고 멋진 오페라하우스가 첫눈에 들어오는 낭만의 도시……. 그렇게 되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부산은 해방 이후 끝없이 들어온 '문화의 불모지' 운운하는 저 상투적인 오명에서 벗어나 인간의 얼굴을 가진 도시가 된다…….

다 맞는 말이다. 아니, 맞는 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무진 셈속에는, 특히 오페라하우스 건립

에 따른 부대효과를 기대하는 희망 속에는, 마땅히 따져야 할 부작용(副作用), 혹은 '부작용(負作用)'에 대한 고려가 결락돼 있는 듯하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관광산업과 돈을 연상하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뇌리를 잠식한 관료적, 물신적 발상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에도 침투돼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총론적, 혹은 개론적 걱정 몇 가지만 제기하기로 한다.

예술이 융성하려면 기본적인 하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한다. 제대로 된 공간 인프라가 일단 구축되면 그에 맞춰 공연예술인·단체의 숫자와 기량이 늘어나고 관객의 숫자도 확대될 것이란 주장에도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부산의 오페라 공연 회수, 관련단체의 수준, 관객 숫자는 따져보기 민망할 정도이지만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는 오페라를 비롯한 부산의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자극하는 기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따져보면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자연스러운 수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인위적, 공학적 산물이다. 오페라 공연이 넘쳐나서 공간의 부족 때문에 큰집이 필요해졌다고 보다는 롯데그룹이라는 특정기업이 2008년 1,000억 원을 기부 약속했기 때문에 그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다는 이야기다. 거기에서 부산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하나 세워놓으면 두고두고 만인이 칭송할 현대판 송덕비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관료적 발상이 보태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겠다.

경위야 어쨌든 이참에 멋진 오페라하우스 하나 장만하는 것이야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이왕 짓는 거, 좀 더 멋있게, 좀 더 알뜰하게, 좀 더 쓰임새 있게 지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려면 부산시와 문화예술계가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라는 것이다. 2014년에 착공해 2018년 쯤 완공하기로 결정해 기본 계획안까지 발표하고 국제설계공모까지 시행해 오는 9월까지 당선작을 발표하기로 된 마당에 새삼 타당성을 따져 무얼 하겠느냐는 소리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지을 땐 짓더라도 수요 예측이 제대로 돼야 오페라하우스 내의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인가가 제대로 결정될 것 아닌가.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4억 유로, 오슬로는 5억 유로 쯤 들었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6,000억~8,0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1,800석 규모의 오페라극장, 500~1,000석 안팎의 중극장, 300석 규모의 콘퍼런스 홀에다 1,500㎡ 갤러리 등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를 준 3개 안을 내놓았다. 투입재원은 연별로 3,037억~3,863억 원이다. 6월19일 최종보고회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작은 3,037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구의 유명 오페라하우스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또한

엄청난 예산이다. 공사에 들어가면 적어도 1,000억 원 쯤은 더 든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이런 돈을 들여 지어놓고 '장식용 오페라하우스', '임대용 오페라하우스'로 전락시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닌가. 게다가 완공 후에도 연간 운영비만 114억 원 안팎이 들고 연간 적자가 최소 32억원 이상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 사업인데 최근의 계획안이 충분한 중·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알다시피 부산의 오페라 관객 인구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다. 서울발 대관공연을 빼고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손에 꼽을 만한 숫자의 부산 오페라에 유료관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먼 곳에서만 답을 찾기보다 여러 여건에서 부산과 큰 차가 없는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야 할 것이다. 대구도 삼성그룹이 지어준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다고 한다. 요즘 영화제 기간 외의 쓰임새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의전당의 교훈도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만큼 외관의 장식성이나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란 뜻이다. 주어진 건립 예산 안에서 미관과 효용성을 고루 갖춘 설계를 얻어내는 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다. 음악은 물론 미술, 문학 등 타 장르 예술가를 포함한 예술인집단, 인문학자들까지 모아 머리를 맞대고 건물의 쓰임새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다. ‘집단지성’이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건물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낸다 하자. 그럼 그 안에 채울 콘텐츠는? 부산엔 시립 오페라단은 물론 제대로 된 민간 오페라단도 없다. 얼마 전까지는 개인 기획자가 이런 저런 성악가들을 급조해 오페라 공연 시늉이라도 냈지만 최근엔 그런 움직임마저도 뜸하다.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서울과 외국 오페라단을 초청해 채울 건가?

오페라하우스를 만들려거든 당장 시립 오페라단부터 만들 일이다. 지금도 늦다. 제대로 된 오페라단 하나 가지기가 그렇게 쉬운가? 부산시 공무원들은 집 한 채 짓듯이 부산의 성악가 몇을 불러다 상임단원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연 때마다 객원을 채우는 방식의 오페라단을 똑딱 만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공연에 어느 시민이 수십만 원 티켓을 사들고 오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시립오페라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꼼꼼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또 있다. 서구 오페라하우스엔 오페라단은 물론 전속 오케스트라, 발레단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향, 부산시립무용단을 끌어들이면 될 것이라 계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 간에 엄연히 역할과 기능이 분화돼 있다. 한두 번은 시향이 나 시립무용단을 불러 쓸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걸 상례화할 수는 없다. 공연의 부실화가 눈에 보인다. 그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공연 횟수가 줄어들고 마침내는 오페라하우스가 ‘돈 먹는 하마’, ‘유령의 집’으로 전락해 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껌데기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학적 접근으로 안 된다.

문제를 하나 더 들어보자. 멋진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면 그에 맞는 명품 오페라가 상시 공연돼야 한다. 만날천날 ‘라보엠’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나 공연하고 있을 건가? 부산의 이야기를 다룬 부산 오페라는? 부산산(産)오페라가 있어야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든 어찌든 할 게 아닌가. 이탈리아, 독일 같은 곳 두고 하필 부산서 ‘라보엠’을 보겠다고 외국 관객들이 찾아올까? 2억~3억 원 들여 적당히 의뢰한다고 부산산 명품 오페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치밀한 스토리텔링과 오랜 기획을 거

벨기에 브뤼셀 라 모네 극장



쳐야 한다. 2018년 쯤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시리즈 공연에 부산산 오페라 한편 없는 장면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작품’ 한두 개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내려면 오랜 기간 기획하고 충분히 돈을 들여야 한다. 안 그러면 ‘대관 오페라하우스’가 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구겐하임미술관처럼 성공한 공공문화시설의 비결은 껌데기가 아니라 콘텐츠에 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관극운동도 필요하다. 부산시는 지금 부산과 부산 인근 도시의 오페라 고정 관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집계라도 한 번 해 봤는가? 오페라 관람이 일상의 문화가 된 서구와는 달리 우리의 오페라 문화는 일천하다. 평생 오페라의 ‘오’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숏하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오페라공연을 들여와 비교적 싼 관람료에 내놓아야 한다. 홍보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조금씩 오페라 보는 맛을 들이게 해주라는 이야기다. 오페라 공연 관극담도 공모하고 시민비평단 같은 것도 한번 꾸려보라. 이곳저곳에서 오페라 갈라쇼도 꾸준히 열기를 권한다. 전 국민이 ‘영화팬’이라는 기반에서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와 관객층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준비 없이는 관객이 모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우 하나만 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

도 오페라하우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오페라하우스 하나 지어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이룰데면 이런 이야기와 같다. 한 스님이 달걀 한 꾸러미 든 바구니를 시주받아 발치에 걸어놓고 흐뭇한 꿈에 잠겼다. 달걀을 병아리로 만들고, 닭을 팔아 새끼염소를 사고, 염소 팔아 송아지를 사고, 소를 키워 수십 마리로 늘려서 멋진 절을 짓겠다……. 결과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바구니를 발로 차서 달걀을 몽땅 깨버린 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다가 나중에 적자를 메운답시고 정체불명의 잡탕 공연에 장소를 빌려주고, 온갖 음식점과 상업시설을 끌어들일까봐 걱정 돼서다. 그게 오페라하우스를 망치는 지름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영화의전당이 적자라고 부산시가 조급증을 내는 것을 지켜보자니 그런 걱정이 드는 거다. 물론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를 하란 이야기다.

결론 삼아 요약하겠다. 오페라하우스를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부산시의 욕심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브랜드 하나 만든다고 문화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 나아가 예쁜 건물 하나 짓는다고 브랜드가 되는 것도, 관광객이 모여드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콘텐츠다. ─

영화의전당 (Photographed by 전우승)





# 북항재개발과 오페라하우스

**김승남**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하였고, 독일에 유학하며 실무 종사한 바 있다. 현재는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과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각종 지자체 건축 및 도시 디자인 심의 위원, (주)광안리 사람들 공동대표, 안녕광안리 편집위원, 하야리아 시민공원 포럼, 도시건축포럼 B 등 다양한 도시건축 및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산복도로 지역을 다룬 적이 있다. 그곳은 피난시절과 경제개발시대 서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담긴 곳이다. 평생 이 곳에 사신 한 할머니께선 지난날을 이렇게 회상하셨다. “그때는 바다를 보며 참 많이도 울었지. 망막해서, 사는 게 너무 망막해서…….”

그렇다. 부산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를 준 건 바다였다. 몇 십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산복도로 사람들뿐 아니라 부산 사람이라면 지금도 망양로에서 북항을 바라보며 “그래도 살면서 바다를 볼 수 있어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 북항의 바다는 부산사람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대륙 침략과 강탈을 위해 사람 살던 포구가 매립되어 군사 항구로 바뀔 때도, 그 후에 부산이 놀라운 성장을 하고 경제발전을 할 때도, 우리는 도로와 항만시설, 물류와 컨테이너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돈 벌러 배타고 나간 남편 기다리듯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바다였다.

북항재개발은 바로 그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2004년 대통령의 부산재창조구상에 의거하여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이 사업의 목적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투리 섞인 바람에 담겨있다.

“동구사람들이 쓰레빠 끌고 마실 갈 수 있는 곳을 만드이쇼” 이 말은 곱씹어 볼수록 북항이 나아가야할 바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사람들이 도시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했으니, 이곳을 차지했던 컨테이너 박스는 새로 조성된 신항으로 옮기고 이전 시민들, 특히 지척에서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던 산복도로 서민들이 자기 앞 마당처럼 눈치 안보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상의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GS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대안을 보완하여 변경(안)  
출처 2012년 4월 30일 북항토론회에서 BPA 발표자료 (북항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북항재개발 계획

그 후 8년이 지났다. 그동안 특별법도 제정했고, 매립작업은 막바지이고, 선도 시설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착공이 임박했지만 북항재개발의 전체 마스터플랜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계획안을 수정하였고, 특히 유치시설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는 유찰과 재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받아 변경 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눈치다. 전보다 나아졌지만 현재의 변경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민이 이해가 된다.

이 계획의 전면에는 반복되는 부산 경제와 원도심 활성화가 앞서있고, 또 다시 물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이미 몇 십 년 전 선진국에서 써 먹었던 낡은 방식이다. 넓은 도로에 의해 커다란 슈퍼 블록들이 섬처럼 나뉘고, 거기에 고층 건물들이 병풍처럼 들어서고, 맨 끝 가장자리에 랜드 마크와 커다란 공원을 조성하는 지극히 2차원적인 토건시대 획지분양을 위한 도시계획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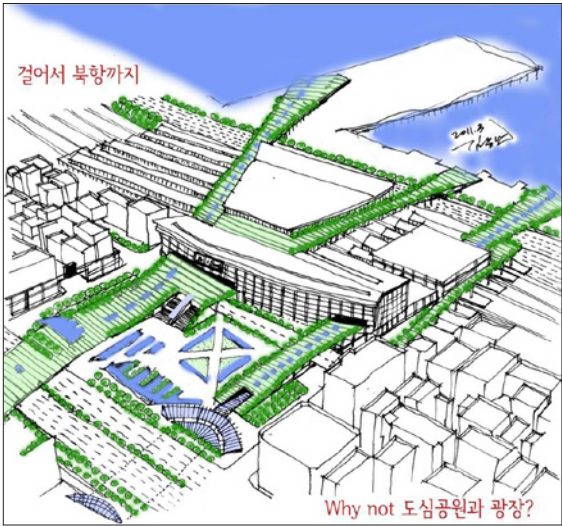
남들은 일부러 길쭉하게 뻗은 수많은 도크들을 늘려 바다와 육지를 깎지 끼우듯, 사람들이 바다에 접할 수 있는 해안선 길이를 늘이지 못해 안달인데 오히려 더 단조로워진 워터프론트의 형상도 그러하고, 바다와 조성되어 물 순환도 어려운 내부 수로, 도로에 의해 조각난 수로 옆 가로공원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리고 상가와 주택, 그리고 도시철도가 있는 기존 도시지역에서 수많은 넓은 도로와 철도를 건너 1 Km를 걸어야 바다 근처에라도 갈 수 있으니 동구 주민들이 슬리퍼 끌고 마실 갈 수 있는 접근환경이 아니다. 거기에 땅은 초고층 건물들이나 들어올 수 있는 슈퍼블록 위주로 개발되니 도대체 어디에서 떡볶이나 오뎅이라도 사먹고, 커피나 소주 한잔 마실 수 있는 지 상상하기 힘들다. 또한 센텀시티의 APEC 나루공원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해양문화지구를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비전과 요구를 찾지 못하니 결국 오페라하우스 같은 초대형 시설이나 또 다른 랜드 마크만 그려낼 뿐이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지역이 뚜렷한 도시 개발 전략이나 잠재력, 그리고 매력적인 집객요소가 부족하니 제안을 하여도 사업성을 위하여 결국 그나마 안전한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는 축제와 음악회가 열리는 오픈 스페이스가 공존할 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이러한 계획안을 볼수록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기도 힘들고, 가셔도 소외되고, 결국 공공의 땅을 사유화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을 곳으로 만들 거라면, 왜 이 넓은 땅을 토지매각을 담보로 메우고 개발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차라리 최소한의 부지만 조성하고 확신이 설 때까지 공공의 땅으로 내버려 두면 바닷가 이 넓은 땅을 시민들이 마음껏 쓰며, 천천히 하나씩 채워나갈 여지라도 있을 것 같다.





2011년 3월 8일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필자의 스케치  
출처 부산일보 2011년 3월 8일자 신문

이곳에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민들을 쉽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건물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바다 옆 이 좋은 곳에서 함께 모여 즐기고 활동할 수 있기 위해 짓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워터프론트 개발은 과거와 같은 토건사업에 기반한 양적 개발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을 회복하는 친환경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콘텐츠와 스토리, 문화유산들과 함께 엮여질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함은 조금만 시선을 멀리하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미래의 방향이다. 그리고 부산에서 그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 메워지는 바다 위 맨 땅에서가 아니라, 이미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엄청난 경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기존 도시지역과 사람들의 문화와 삶속에서 출발해서 북항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도시 전체에 대한 전략이 있을 때, 민간에서도 전체적인 개발방향에 부응하면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보다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시개발은 궁극적으로 수준 높은 공간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이 지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려면 그들이 오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은 감동의 콘텐츠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정성을 들여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역시 북항개발에 정말 필요한, 귀한 도시 문화의 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타 도시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부족한 문화시설과 제대로 된 오페라 한 편 볼 수 없었던 현실은 부산에 문화 불모지라는 오명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페라하우스는 그 자체가 도시문화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징적 의미는 크다.

그러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한다. 과연 수천억에 달하는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는 차치하더라도, 껌데기만 웅장하고 요란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와 디테일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에 앞서, 한 편 제작비용만 해도 몇 십억 원 이상 드는 오페라라는 최고의 문화 콘텐츠를 누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것이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주변 공원과 연계되며 일상적으로 활용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등등 심사숙고해야 할 선행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한 고민 없이는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다는 사실을 부산이나 도처 사례들에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인고의 과정 없이 잉태되는 오페라하우스가 도시의 훌륭한 자식이 되길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2007년 완공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출처 ArchDaily (Website) www.archdaily.com/440/oslo-opera-house-snohetta

나가는 말

하나의 감동적인 도시지역과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건축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발목적과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이 설계되기 전에 먼저 시민들의 욕망이 디자인되고 공감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건축과 좋은 도시는 성숙하고 간절한 도시의 문화 만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감도나 이미지로 발표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 계획 앞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이 완성된 결과 앞에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도시의 개발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실천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보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잘 준비되었는지가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보다 빨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는 절박한 바람과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칫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 아이디어, 의견과 힘을 모으는 값진 시간들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만족할 만큼 준비를 다 못한다면, 과감히 다음 세대에 그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부산, 오페라하우스 VS 국립극장

### 최도인

(주)메타기획컨설팅 전략사업 본부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발전방안(2005), 노들섬 예술센터 운영전략(2006), 통영 윤이상음악당(2007),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운영 컨설팅(2009~2012) 등 다양한 도시의 문화정책 및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서울시향 컨설팅 사례는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케이스 스터디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공연예술센터 국제심포지엄(2006), 대만 타이베이현 창조도시 국제심포지엄(2008)과 러시아 브리야트 바이칼포럼(2008) 등에 참가했다. 찰스랜드리의 저서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의 한국어판 기획과 감수를 맡았으며, 예술종합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

### 지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극장이 살아남는다.

최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와즈디 무아와드 작, 김동현 연출의 '그을린 사랑'이라는 작품을 보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장 무대에서 좋은 연극을 만나는 것은 서울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명동예술극장이 개관한 이후 달라지고 있다. 명동예술극장은 국립극장이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1975년 문을 닫았고, 2004년 당시 증권회사가 쓰던 건물을 문화부가 매입하여 공연장으로 복원하였다.

당시 문화부와 공연예술계 전문가들은 새롭게 복원된 극장의 예술적 방향과 운영주체를 정함에 있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고, '극예술(연극) 전용극장'으로 방향을 정하게 된다. 명동예술극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 예술극장 등 중규모 공연장이 제 몫을 하게 되면서 서울의 최근 공연장 지형이 바뀌고 있다. 대학로 건물 지하에 세들어 살고 있는 소극장들이 한국 연극의 주 무대가 되었던 시절이 지나고 있다. 공연장의 지형 변화는 연극 만들기에 참여하는 연출, 배우, 디자이너, 기획자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을린 사랑' 같이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작품을 우리의 언어로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명동예술극장은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분명한 극장이 되었다.

### 부산의 두 가지 대형 공연장 프로젝트

공연장 건립은 다양한 동기에서 시작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재활성화'라는 논의 속에 공연장이 건립되고 있고, 도시 아이콘 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랜드마크형 공연장 건립이 추진되기도 한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전설의 반열에 오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고전적 모델부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게이츠헤드의 세이지 게이츠헤드 콘서트홀(The Sage Gateshead) 등의 사례가 등장한다. 대형 부동산 개발에 매력을 더하기 위하여 공연장은 주요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공연장을 건립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의 관광유발 효과가 있고' 하는 등 문화적, 예술적 맥락에 대한 논의를 뒤에 두고 공연장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 예술 이외의 관점에서 부산의 두 가지 대형 공연장 프로젝트를 살펴보자면, 부산국립극장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분권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지향점 속에 위치한다. 반면,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북항 일대의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도시의 '장식 예술' 만들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시작된 동기는 부산의 문화예술과 시공간 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필자가 참여한 부산국립극장 기본계획 연구(2011)는 건립의 동기를 재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문화사적으로 부산에 왜 국립극장이 필요한지, 건립된다면 어떠한 예술적, 문화적 미션을 부여받아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립과 운영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싱가폴 에스플러네이드







영국 세이지 게이츠헤드 콘서트홀

서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중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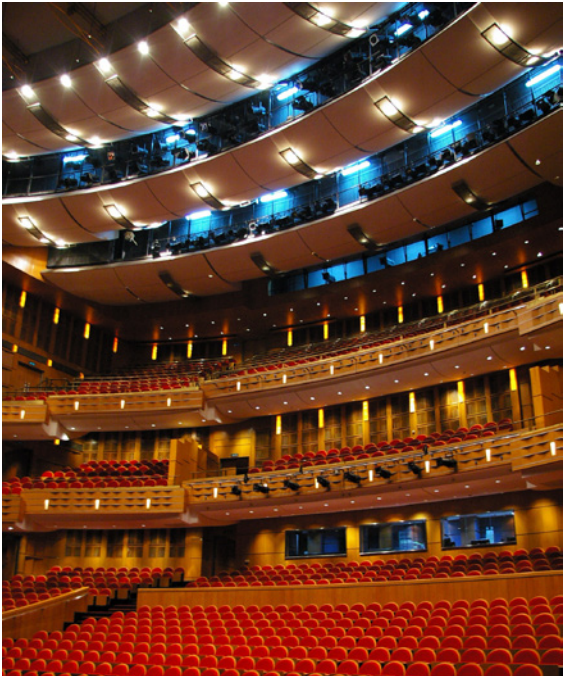
2005년 서울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전격 발표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예술섬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한강르네상스 계획 속에서 추진하려 했지만, 현재 박원순 시장에 의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당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한강 가운데 있는 섬에 대형 공연장을 짓는 것은 도시적 맥락에서 볼 때 공공적 문화 인프라가 가져야 할 접근성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오페라하우스=오페라전용극장’이라는 논리로 한국에서 척박한 예술분야인 오페라를 위한 전용극장을 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필자 주. 오페라하우스=오페라전용극장이라는 논리는 한국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 예술의전당이 오페라하우스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되는 형태를 보면 오페라, 발레, 뮤지컬, 현대무용 등 대형 공연이 펼쳐지는 고급 공연장 정도의 개념이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문제는 간단하다. 서울에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고품격 대형공연장(오페라하우스)’이 또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왜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담당자들은 ‘서울에도 시드니와 같이 문화적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시민과 문화예술계가 공유할 만한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한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서울시향의 전용 음악홀을 만들자는 구체적 플랜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이 좌초되는 상황에 이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 상하이대극장



최근 신문을 통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추진되는 양상을 보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추진방식과 여론에 있어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부산국립극장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다시 부산국립극장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자. 현재 국립공연장 시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서울에는 예술의전당, 남산 국립극장, 명동·정동예술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등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건립에 참여했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공연장이 있지만, 제2의 도시 부산에는 전무하다.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제2의 도시 부산에 국립극장이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술적 맥락에서 보자면 서울 국립극장의 경우 ‘전통예술의 현대화’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 연구진들은 부산에 국립극장이 지어진다면 서울 국립극장과는 다른 예술적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부산국립극장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지향의 국립극장 모델’이 적합하다고 결과가 모아졌다. 서울 국립극장과는 역할분담을 통해 부산국립극장의 예술적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문화정책적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산국립극장에 대한 논의는 작년 상황과는 달리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인다. 부산국립극장 추진에 공감하던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처음부터 콘텐츠와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필자는 부산 북항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전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오페라하우스를 짓자고 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만드는 행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부산 북항에 공연장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문화 인프라를 짓는다면, 그럴듯한 전용 콘서트홀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중규모의 연극전용극장이 필요할지, 대중음악 공연장이 필요할지, 실험적인 예술창작공간이 필요할 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할 일이다. 또한, ‘오페라하우스’라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페라의 탄생지’ 유럽에서도 최근 지어지는 공연장에 오페라하우스라고 이름 짓는 경우는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 같이 자신들의 국공립 오페라단이 활동할 거점을 이전하는 사례를 빼고는 보이지 않는다.

장르적 관점에서 보면 ‘오페라’는 한국에서 공연장의 1년 레퍼토리를 채우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한 ‘콘텐츠’이다. 한국에 프로페셔널 오페라단이 몇 개 있는지, 그 오페라단이 몇 편, 몇 회의 공연을 하고 있는지, 부산에서는 얼마나 오페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보면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페라단을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물어야 한다. “그럼, 오페라단을 먼저 육성하는데 투자하시라.”고, 대형 공연장 시설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SOC 성격의 문화인프라이다. 레스토랑의 예를 들면, 주방장도 없고 메뉴 개발은 안 되었는데 고급 레스토랑 인테리어부터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부산오페라하우스의 논의를 보면, 운영에 대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2,000억 원을 들여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했다고 하면, 약 200억 원이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를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기업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들이 운영의 난맥상에 빠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기업에서 운영까지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시가 운영을 책임질 것인지 건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가 그 정도의 재정을 연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 기업이 부산의 문화 인프라를 위해 1,000억을 기부한다면’

최근 기사를 보면, 시에서 의뢰를 받아 한 학회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공청회를 여는 등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다시 던질 때이다. ‘기업이 부산의 문화 인프라를 위해 1,000억을 기부한다면’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보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면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지 생각해 보자. 1년여 추진되던 일을 뒤로 돌릴 필요까지 있느냐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의 문화 인프라인 공연장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아직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첫 삽을 뜨지도 않았을 때 되돌아보는 것이 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일이다. 기업이 기부를 한다지만, 시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결국 공공의 일이라는 것이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현 한강예술섬)처럼 수백억의 설계비를 들여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멈추게 마련이다. 시와 기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문화예술의 생태계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또한, 부산국립극장의 건립 추진이 지역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해 본다. —

롯데 1,000억, 문화후원인가 개발이익환수인가?

김창욱

음악학박사(Ph. D)  
부산음악협회 부회장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이사  
계간 『예술문화비평』 편집위원  
동의대 대학원 및 부경대 교양과정 강사  
『국제신문』·『부산일보』 객원평론가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음악부문 집필위원  
부산국립극장 설립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롯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껌이다. “쥬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이라는 윤희주의 달콤한 CM송도 떠오르고, 한 통에 50원 하던 이브껌을 질경질경 씹으며 소 먹이던 중학시절도 기억난다. 뒤에 알았지만, ‘롯데’(샤를로테)는 그 유명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아니던가. 롯데껌은 티없이 맑은 로테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더욱 짙은 맛과 향을 뿜어냈다.

흔히 적은 액수의 돈을 ‘껌값’이라고 한다. 소액을 홀대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롯데는 껌값을 모아 성장한 기업이다. 1967년 4월에 껌을 만들어 팔던 롯데제과는 70년대에 롯데호텔·롯데상사·롯데칠성음료·롯데건설, 80년대에 롯데냉동·한국후지필름·롯데물산·롯데자이언츠·롯데백화점·롯데월드, 90년대에 롯데캐피탈, 2000년대에 롯데카드, 롯데홈쇼핑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 식품에서부터 유통·관광·중화학·건설·기계·금융·정보에 이르기까지 롯데가 손 대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다. 게다가 롯데의 손은 가히 미다스를 방불케 한다. 7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롯데는 마침내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이 되었고,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재계 순위조사에서 삼성·SK·LG에 이어, 자산총액 83조 3천 50억원으로 7위를 차지했다.

이런 재벌그룹이 오래전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1천억 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5월 15일 부산시는 롯데그룹과 ‘부산오페라하우스’(가칭, 새롯데 뮤지컬센터) 건립기부 약정식을 체결했다. 약정서는 롯데그룹이 사업비 1천억 원을 들여 북항재개발지역 내 부지 6만여㎡에 연면적 2만 3100㎡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 부산시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즈음 우리는 롯데가 약속한 1천억 원이 과연 부산문화를 위한 순수 후원금인지, 나아가 이 정도 예산으로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8	Cover Story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말하다	롯데 1,000억, 문화후원인가 개발이익환수인가?		29	공감 그리고...
	<p>먼저 롯데의 1천억 원이 문화후원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의 문화후원 정도는 메세나 참여실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계 지원을 목적인 한국메세나협회에 롯데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아쉽게도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09년 문화예술 지원 상위 20대 기업’ 명단에서 롯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10대 그룹’으로 꼽히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이 9위, 신세계백화점이 15위를 차지했으나, 백화점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백화점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은행·세정·성원종합건설·옵스 등과는 달리, 부산메세나 참여에 있어서도 매 한가지다.</p> <p>그렇다면 롯데가 문화가 아닌, 사회공헌에 관심을 기울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데의 지역공헌 마인드는 거의 없는 편이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모금단체인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0년 기업 기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세정이 한 해 동안 각각 11억 7천만 원, 3억 6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주류와 롯데건설은 각각 5천 3백만 원과 5천만 원,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1천 4백만 원을 기부한 정도다. 롯데 자이언츠는 1천 2백만 원으로 기부 순위 50위권 안에 도 들지 못했다.</p> <p>사실 롯데는 부산기업이 아니다. 부산에서 태동한 기업도 아니고, 본사도 부산이 아니다. 그런데도 롯데는 자이언츠, 즉 야구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백화점·신용카드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 전반의 시장 점유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p>	<p>2010년 부산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소매유통업 소매동태 조사’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65%로 신세계 24.5%, 현대 10.5%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롯데백화점의 전국 시장점유율 44.1%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롯데카드의 부산시장 점유율도 전국 점유율의 2배에 이른다. 롯데카드사가 제시한 2010년 롯데카드의 전국 시장 점유율은 7.5%인데, 부산시장 점유율은 약 15% 정도로 추산된다.</p> <p>또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의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 역시 타 지역보다 부산에서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다. 엔제리너스가 인터넷에 공개한 전국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부산의 가맹점은 인구 1천만 명 서울 110개 점(23개 구)의 절반 수준인 54개 점(12개 구)에 달한다.</p> <p>그러나 ‘2010년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성 예금 예치나 월 현금 매출액 예치, 급여통장 활용실적이 전무했다. 롯데호텔은 심지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어 지방세 감면혜택까지 받았다. 호텔 롯데 부산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01년 4억 4천 8백여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기도 했다.</p> <p>그 뿐만이 아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뒷편 107층 짜리 초대형 부산롯데타운 주거허용 특혜논란, 롯데마트 신설과 증설에 따른 전통시장의 고사위기, 백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 등 굵직한 논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유통 공룡’ 롯데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p>	<p>그런 까닭에, 롯데의 1천억 원이 순수한 문화후원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턴키(turn key, 시행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주하고 공사를 마치면 발주처에게 열쇠를 되돌려 주는 것) 방식으로 롯데건설의 참여가 예상된다. 즉 롯데는 부산시에 1천억의 오페라하우스 건립비를 내고, 외려 그 이상의 개발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혐의가 없지 않은 것이다.</p> <p>한편 롯데가 내놓은 1천억 원으로 과연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지난 5월 11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과 발전방향을 위한 시민공청회’(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오페라하우스 개발 규모와 시설 구성안을 제안했다. 제1안은 오페라극장 1천 800석, 중극장 500석, 콘퍼런스홀 300석 규모다. 제2안은 오페라극장 1천 800석, 대극장 1천석, 콘퍼런스홀 300석이다. 제3안은 오페라극장 1천 800석, 콘퍼런스홀 300석이다. 그러나 어떤 안이 결정되든 건립 예상비용은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롯데 1천억 원으로는 어렵는 일이다.</p> <p>지난해 해운대에 들어선 ‘영화의전당’에는 1천 624억원의 건립비가 들어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용관이자 다목적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이곳에는 한 해 4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물론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겨우 한 해 2~3편의 오페라가 열리는 부산에서, 불과 0.1% 내외의 극소수 관객을 위해서 3천억 짜리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일은 무모하지 않는가. 더구나 여기에 소요될 막대한 운영비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부산시민들이 혈세(血稅)로 메워야 할 판이 아닌가!</p>	<p>작년 부산시는 ‘도시 브랜드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30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2순위로 꼽았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정작 오페라하우스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진 적이 없다. 예컨대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기능에 따른 공간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전문 예술단과 스태프는 물론 행정요원과 같은 운영인력 확보에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페라에 대한 수요나 경제적 타당성 조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조율조차 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p> <p>부산시의 문화정책은 늘 이런 식이다. 4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제2시립미술관 건립도 그랬다. 심각한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부산시정이 복지보다 토목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의정참여단의 올해 부산시 자체예산 분석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시민복지 예산(총 2천 229억원)은 건설·건축 등 토목예산(총 6천 936억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p> <p>시쳇말로 ‘뽀대 난다’는 말이 있다. ‘폼 난다’는 뜻이다. 더 큰 규모, 더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정말 뽀대 나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전후좌우의 성찰도 없이 먼저 ‘짓고 보자’는 것은 막가파식 토건행정이 아닌가.</p> <p>젊고 유망한 지역 문화예술가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 예술가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지역마다 문화회관이 있지만 객석은 여전히 썰렁하다. 볼 만한 공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아니다. 오히려 부산을 떠나는 젊은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기존 지역문화회관에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고, 기획공연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문화의 물결이 부산 사람들의 일상적 삶까지 출렁이게 해야 한다.</p> <p>문화는 반드시 ‘크고 강한’ 것이 아니다. 의외로 작고 섬세한 것이 문화다. ─</p>		



# 기획좌담 부산과 오페라하우스

| 일시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회의실

- 사회자**
조정운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좌담자**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박성택**
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이승욱**
문화기획자,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이우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사무관  
(가나다순)



장리 정민정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30

**사회자** 오늘 이 자리는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감 그리고」 여름호의 커버스토리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말한다’와 관련한 좌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좌담을 위해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님, 박성택 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님, 이승욱 문화기획자 및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님, 이우환 부산시 문화시설 계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추진 배경 및 과정, 재정, 운영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겠습니다.

**김태만** 부산오페라하우스 추진과 관련된 입장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의 공감대 없이 시의 최고 정책결정자나 혹은 그 주변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6년 동안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오면서 추진되었던 ‘영화의전당’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애초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공감대 없이 단지 ‘롯데’라는 특정 기업이 1,000억을 기부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에서부터 많은 시민들은 공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우환** 2008년 롯데는 북항재개발 지역에 부산시민을 위해 1,000억 원으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기부하겠다는 내용을 부산시와 약정체결했습니다. 당시 롯데는 서울의 ‘사롯데씨어터’와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건립비용을 참고해서 1,000억 원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5년간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년 전 문화시설담당 조직을 문화예술과에 새롭게 만들고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욱** 저는 롯데의 기부가 아무런 조건 없는 메세나 성격의 기부인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사후 다른 이익과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래서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우선 의문이 갑니다. 이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근거,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와 운영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었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전당’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실제 콘텐츠를 근거로 출발했지만 영화제 기간 이외에는 문화공간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내용은 없고 건축물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1,700억짜리 거대 조형물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이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 건축계획에 비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컨셉, 프로그램, 예산, 인력 운영에 대한 기본조사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이보다 더 준비가 더 부실하지 않은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성택** 저는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멋진 공연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갑게 생각하고, 또 이왕 건립된다면 제대로 된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문화시설 건립은 국가나 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지인데, 사실 그러한 사업을 실행할 때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문화시설들이 완벽한 계획을 기반으로 시작된 경우 보다는 도시 개발과정의 일환으로 비로터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후 콘텐츠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지금부터 그 고민을 시작한다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사회자** 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건립예산과 운영예산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건축예산에 대해 현재 롯데가 1,000억을 기부한 상태인데 건축예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우환



박성택



**김태만**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예를 키를 능력도 없는데 열려 애부터 낳고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부산 시에서 충분히 재정담보 능력을 갖추고, 예상 수요와 운영에 관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진행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1,000억을 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든 계획이 앞으로 건립비용부터 시작해서 운영비용까지 끊임없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00억으로는 제대로 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향후 발생하게 될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이유한**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하여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연구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여 한국 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예상한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건립비용은 3,000억 정도이며, 부족한 건립예산에 대해 부산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 롯데가 건립기부를 약정한 만큼 1,000억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더라도 건립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안한 상태이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려울 경우 나머지 2,000억에 대해 국고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 예술계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자** 현재 부산시는 국립극장과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비전과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는 두 공영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욱** 저는 부산국립극장 티당상 연구조시에 참여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국립극장 가운데 하나를 꼽으려면 먼저 국립극장 건립 추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산국립극장은 국공립 문화시설 제배처

는 과정도 필요하고, 아프지만 현실의 상황을 엄격한 기준으로 지적 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부채 비율이 33%로 인천과 대구에 이어 심각한 상황이고, 재정지립도 역시 52%에 불과한 지금의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이 투입되는 블랙홀을 또 만들어야 하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사회자** 건립예산이 해결되어도 공연장도 운영과 관련한 비용도 막대한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운영계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보겠습니다.

**이유할** 현재 기본 연구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연가 120억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고, 그 중 90억이 수익, 남은 30~35억 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입지조건과 기존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관람객들을 분석했을 때, 오페라하우스는 부산 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인 수요를 가진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욱** 현재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제대로 된 결과와 나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건축이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수리하고 운영비용을 산출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밝히는 포부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공연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예산과 비용은 제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공연장, 예컨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또한 현대 공연예술의 추세를 보면 공연 자체뿐만 아니라 프리 프로그램과 포스트 프로그램 단계를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교육이나 아카이브와 같은 매개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전당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제

라는 큰 맥락에서 부산의 공연수요와 문화발전 전략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차별화된 방향과 컨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국립극장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건립과 운영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의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략과 계획의 측면에서, 그리고 비용과 예산의 측면에서도 근거가 명확한 부산국립극장을 제쳐두고 국비지원이 쉽지 않은 오페라하우스에 대해 과열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우환** 국립극장처럼 전액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이 있는데, 부산오페라하우스는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립극장에 대한 예산과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예산은 별개의 것이고 추진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문화부로부터 오페라하우스건립에 대한 일부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부산시의 역량과 시민들의 요구가 바탕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립극장은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의 문화시설은 인구수 대비 6,000석 정도 모자라고 광역시 기준으로 하우에 있는 만큼 문화공연시설을 더 유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김태만** 현재 부산에 문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그동안 부산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화나 복지로 가야할 몫을 개별이나 건설 쪽으로만 편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어야한다는 강하고 일방적인 논리보다는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페라하우스 건립 자체에 대한 계획은 변경할 수 없는 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 원점에서 생각하

획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든지, 혹은 하드웨어는 꼭 있어야한다는 원론적인 당위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일단 짓고 나면 고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수정할 수 있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시행착오의 비용은 오롯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박성태** 운영 예산은 기준과 변수에 따라 다양한 예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부산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마련한다면 지금 연구 용역 결과에서 나온 예산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의 극장처럼 설계과정에 운영자와 예술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건축가들이 공간과 동선을 배치하여 이후 실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운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과정입니다. 과거 예술의전당 사례를 보면 88년 개관 이전인 83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전문인 조직을 가동시켜 공사 진행과 함께 운영준비를 진행하면서 초기 설계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태만**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긍정적인 사례를 가지고 부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것은 공간 이외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구축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산의 오페라단도 시의 지원이 있어야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형세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진다 한들 형식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콘텐츠 생산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회자** 콘텐트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초기 단계에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신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0여년 만에 부신시민에게 돌아온 공간에 지어질 오피스텔하우스는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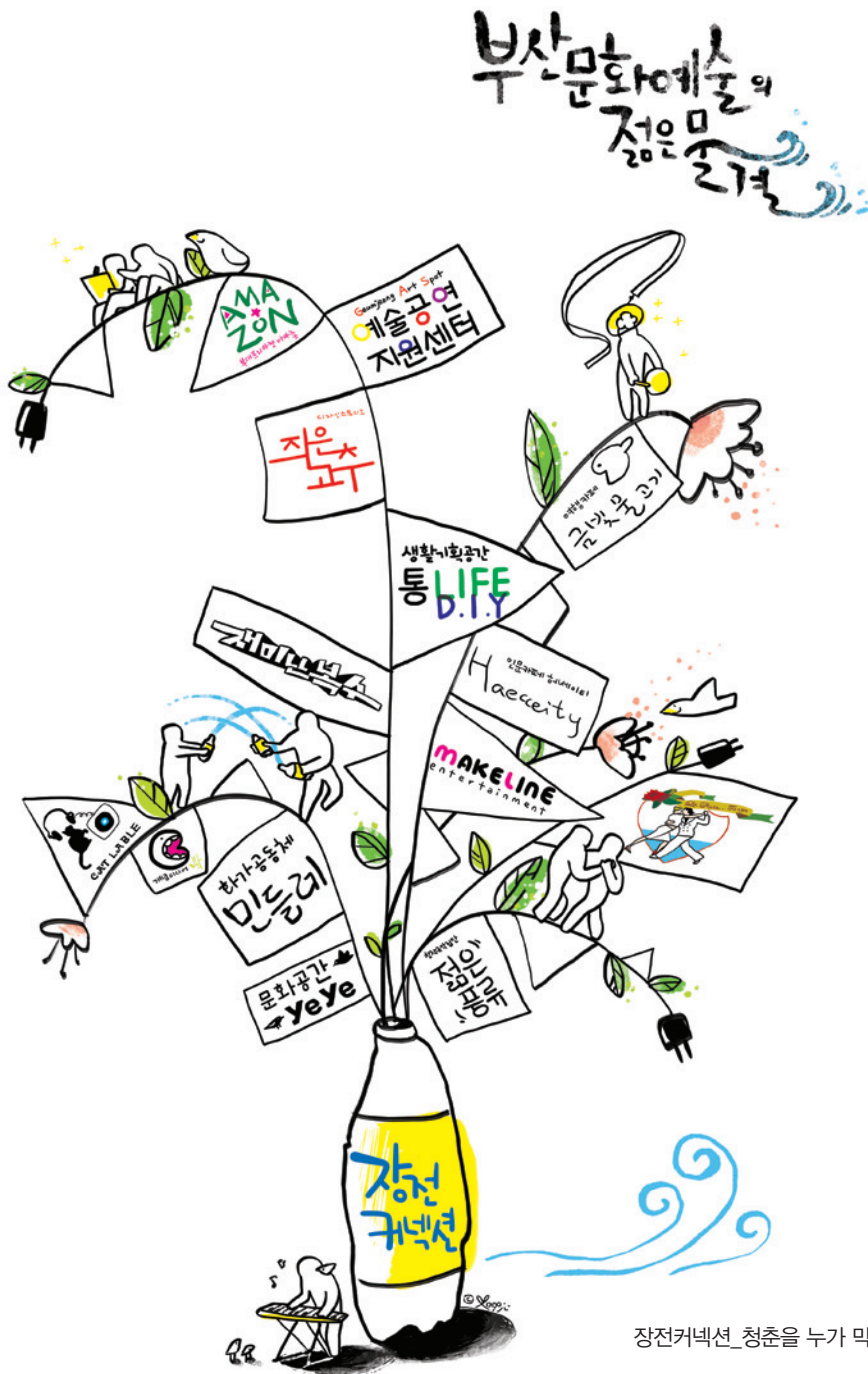
	<p>공연장이 되어야 할지, 현재 부산에 필요한 공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p> <p><b>이우환</b> 현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은 오페라전용극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페라전용극장이나 복합공연장이나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 및 비용이 달라지는데, 스피커 사용 없이 건축음향을 이용하는 오페라전용극장에 비해 기계음향이 필요한 뮤지컬이 포함된 복합공연장의 경우 그만큼 시설관련 비용이 증가합니다. 현재 약 3,000억 원의 건립예산 안에서는 오페라전용극장이 현실적이고, 전용극장이라 하더라도 오페라 공연과 더불어 발레나 무용공연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b>박성택</b> 오페라전용극장이라는 것은 오페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공유하는 발레나 무용 같은 장르의 공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뮤지컬을 겸하는 오페라극장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국내 오페라극장에서 매일 오페라만으로 공연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 요한 시즌에 본래의 기능을 살려 오페라공연을 진행하고 비수기에는 공연장의 기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클래식 콘서트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전에 자문을 하기도 했지만, 오페라 하우스가 단순 공연장이 아니라 주간에는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도 하고, 관련 전공 학생들이 실제 오페라 제작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오페라팩토리를 만들어 다양한 기능을 겸비했으면 합니다.</p> <p><b>이승욱</b> 시민항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어떤 공연장을 짓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페라하우스라는 특정 문화공간을 누가 언제부터 기정사실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북항이라는 상</p>	<p>징적인 공간에 오페라하우스가 최적의 선택과 투자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부산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야외공연장을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오페라하우스를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시설을 일차게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사 상구에 건립을 추진하던 컨테이너 문화시설 계획이 현재 표류하고 있는데 북항아말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재밌는 공간을 추진해보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문제는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내용이고 예산에 맞는 계획을 일차게 수립하는 것입니다.</p> <p><b>김태만</b> 건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무엇'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담을 프로그램과 그 과정에 대한 기획과 공간 배치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구체적인 근거나 준비 없이 '오페라하우스'라는 결론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기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과정은 처음부터 함께 논의되지 못한 채, 건축가들 손에서만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부산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상징할 수 있는 북항재개발지역에 오페라하우스라는 고착화된 개념만을 집어넣는다면 그 공간은 또 다시 시민들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p>
--	--	---



<p><b>이우환</b>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현재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운영 및 예술 전 문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세계적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파크개념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도 더욱 긍정적인 자세로 동참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b>사회자</b>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었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의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정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
---	--







장전커넥션\_청춘을 누가 막걸리

정정혜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b0ngji.blog.me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2004 대전국제만화영상전' 동상

〈수다봉지〉〈사소함 1번지〉〈희망다이어리〉〈서툰〉

## Criticism & Review

### Hot Review

부산의 국제문화예술축제를 되돌아보다 | 부산국제무용제, 스펙터클에서 퍼포먼스로

### Close Review

리얼리즘의 귀환: 부산사진계의 두 거목을 만나다 | 변화를 시도하는 대학축제

기억과 향유, 그리고 지속하는 문화운동으로서 문학관을 생각하며 |

제 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참관기 | 해석의 확장성 | 구덕교회

2012 통영국제음악제 관람기



# 부산의 국제문화예술축제를 되돌아보다

정두환

음악평론가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  
CBS음악 FM 〈깊은밤 주님과 함께〉 진행,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매주 화요일 〈정두환의 음악강좌〉를  
380주 연속 강의 중, 동의대음악과 출강, CBS교향악단 지휘

사진제공

(사)부산국제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한국합창조직원회

부산시는 세계 15위이자 아시아 4위의 국제컨벤션도시로 성장했다.<sup>1</sup> 부산의 여러 환경과 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장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연합협회(UIA)가 국제회의 개최 실적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한 수치를 보면 부산은 지난 일 년 동안 총 108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앞으로 세계 10대 컨벤션도시로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밝은 앞날을 예상하고 있다. 부산은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축제도시’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굳히고자 하고 있다. 부산의 16개 구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축제를 제외하고,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만 줄잡아 연 30여회 이상은 되는 듯하다. 이를 산술적으로 보면 매달 2~3개의 행사가 열리는 격이며, 특히, 봄·가을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다.<sup>2</sup>

이러한 수치적 결과만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이런 과정들과 시민 사이에 조금 거리가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부산의 국제축제 가운데 음악과 관련된 ‘부산국제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그리고 ‘부산국제합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중에서 ‘부산국제음악제’는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인 이명야씨가 만든 민간 주도의 음악축제이며, 나머지는 부산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이다.

1 부산 CBS 노컷 뉴스  
(<http://bs.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020&NewsCD=2169670&page=2>)  
2 부산광역시 2012년도 주요행사 참고

부산국제음악제



먼저, ‘부산국제음악제’부터 살펴보자. 이 축제의 첫 회 행사는 2005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연회장, 울산현대예술관 등에서 음악회와 다양한 아카데미가 열리는 음악축제로 진행되었다.<sup>3</sup>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 음악축제는 ‘각 연주분야에서 세계성을 획득한 최고의 음악가들이 부산에 함께 모여 각자의 눈부신 기량으로 훌륭한 앙상블을 연주하고, 뮤직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학생에게 그들의 기량을 전수하고 함께 공부하는 실내악 위주의 음악축제’라고 발생 취지를 밝히고 있다. 초대 음악감독인 비올리스트 최은식과 부감독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모였다. 제1회 부산국제음악제를 바라본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교수(동의대 음악학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내악을 위주로 하는 음악회에 관객이 오겠는가 했는데 진지하게 듣고 박수도 열심히 치는 객석을 보고 놀라웠다. 브람스 ‘현악6중주 사장조 작품 36’은 어려운 곡인데도 무난히 소화하고 있었고, 멘델스존 ‘현악8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20’도 대가들이 연주하니까 확실히 달랐다.”라고 지적했다.<sup>4</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유명한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주

3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홈페이지 참조, [www.busanmusicfestival.com](http://www.busanmusicfestival.com)  
4 부산일보 2005년 1월 31일 기사, 기자 임성원



를 하고, 평소에 듣기 힘든 실내악을 펼쳤다는 것, 그리고 음악도들에게 세계적인 연주자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2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7회 부산국제음악제는 그 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행사와 관련하여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술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국제음악축제는 면과 대중성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는 평이다. ‘음악제가 매회 예술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지만, 국제음악제라는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려면 다양한 변화에 나설 필요도 있다’는 것. 지역의 한 음악인은 “굳이 ‘국제’라는 타이틀을 고집하지 말고, 실내악을 전면에 내세운다거나 좀 더 특색 있는 음악제로 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sup>5</sup>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축제 자금과 관련한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의 유명 연주자들을 초빙해야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매니지먼트 대표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일부 특

5 부산일보 2012년 2월 11일 기사, 기자 김영한





정 후원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보다 폭 넓은 축제로 변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축제 자금만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행사의 내용과 질은 보다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음악축제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이다. 이 음악축제는 ‘부산의 다른 문화행사와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공감대를 유도하여 해양도시 부산에서 음악을 매개로 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균형 잡힌 문화 도시로서 부산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우는 국제적인 음악 페스티벌로 추진한다’고 축제의 성격을 정리하고 있다.<sup>6</sup>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투입되는 이 축제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씨가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가을에 개최된다. 부산문화회관, 울산도문화회관, 영도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에서 프린지콘서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음악회를 통해 음악애호가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다.

2010년 제1회 행사는 ‘프랑스의 향기’, 2011년 제2회 행사는

‘음악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시비와 국비가 투입되는 축제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축제의 주제선정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도, 부산 음악도 없다’<sup>7</sup>는 평이 있었던 2010년 첫 회 음악제 이후, 2회에서는 사물놀이 김덕수씨를 비롯하여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까지 합세하여 ‘음악의 세계화’를 외쳤지만, 음악의 세계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다. 민간 자본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아쉬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국제합창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부산국제합창제는 ‘한국과 전 세계 합창단이 서로 경쟁하고(경연), 워크숍과 콘서트를 통해 세계합창음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등 합창음악을 통한 국제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sup>8</sup>고 그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합창축제는 2002년 제2회 세계합창올림픽이 부산에서 개최하였던 것이 모태가 되어 탄생한 축제다. 합창의 전 장르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자 민속음악, 대중음악, 클래식 혼성합창과 동성합창 등 다양한 합창의 세계를 만날

7 부산일보 2011년 8월 8일 기사. 기자 김영한  
8 한국합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koreachoral.or.kr/busanchoral/busan07.asp?co=7>

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홈페이지 참조 [www.bmimf.co.kr](http://www.bmimf.co.kr)



수 있는 자리다.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콘서트, 워크숍 등 합창의 다양한 면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축제 또한 그들만의 행사로 끝날 수 있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음악축제 3가지를 중심을 살펴보면 필자는 당연한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축제가 필요한 당위성의 문제이다. 이는 축제의 주제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분명한 주제를 기반으로 해야 축제의 주제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주제성 없이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상당히 많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비로소 축제는 출발점에서 지향했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세계화와 국제화는 오히려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재즈라는 제한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지만, 올해 9회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즈 축제이자 국제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주제의 선명성에서

나타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축제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다.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축제인지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축제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면 축제의 성격도 분명해 질 것이다.

언급한 내용들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인 축제의 현장에서 만나는 공통적인 문제일 것이라 생각된다. 모두 함께 생각의 장을 펼쳐 고민하다 보면 보다 아름다운 축제로 부산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회성 축제가 단순히 이어지기 보다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 부산국제무용제, 스펙터클에서 퍼포먼스로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를 보고

## 최찬열

국립모스크바대학에서 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소속 민족인류학연구소에서 인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다시 부산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춤 혹은 몸의 예술과 인문학의 통(通)학문적 문화연구에 몰두하며, 부산민예총 부산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사진제공 부산일보



축전에는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민중적 열망과 본성이 담겨있다. 이는 축전이 애초부터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염원하고 있는 민중의 꿈과 소망을 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잠재된 민중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며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장소가 축전의 장이다. 일회적인 것, 시간적인 것의 난장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하며 창조적 생성 운동이 일어나는 제3의 장소가 축전의 장인 것이다. 그러기에 축전은 스펙터클이라기보다 퍼포먼스에 더 가깝다. 휘황찬란한 볼거리를 그저 바라만 보며 넋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연행 현장에서 새로운움을 창조하는 공동체적 예술행위가 바로 축전이다.

축전의 특성은 경쾌함이며 웃음이고, 또 무엇보다도 춤이다. 춤추는 몸은 가벼워진 몸이며 해방된 몸이다. 이는 춤이 자신을 억누르는 온갖 '중력의 악령'을 털어낸 자유로운 몸의 유희이기 때문이다. 춤 속에서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의 굴레는 찬란하게 사라져버린다. 닷새 동안(2012년 6월 1일~5일)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 시내 곳곳에서 계속된 춤의 난장 속에서 춤꾼과 시민은 몸적 떨림으로 공명하며 다 함께 생명의 악동에 참여했다. 춤과 함께 사람과 도시는 새롭게 되살아난 것이다.

## 주변부 행사 같은 개막일 공식초청공연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 식전 행사와 개막식 그리고 첫째 날 공식초청공연을 시작으로,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과 축하공연 그리고 폐막식으로 마감했다. 그 밖의 다른 부대 공연과 행사를 포함해 총 14개국 160단체 200여 작품이 참여한 풍성한 축전이었다.

개막일에는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힙합과 팝핀, 살사 등의 대중춤 공연의 중심부에 배치하며 시민과 친밀한 소통을 꾀하였다. 다소 예술성이 부족하더라도 시민과 친근하게 소통하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대중춤이 국제무용제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아주 바람직했다.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공연







하프타임 (M-note무용단)

하지만 산만하고 혼란스럽다. 축전의 이런저런 공연을 쫓 살피본 뒤 든 느낌이다. 무엇보다도 공식초청공연과 주변부 행사의 구분이 모호했다. 이질적인 춤이 이 무대 저 무대에서 분별없이 뒤섞이고, 같은 작품이 공간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야외무대와 극장을 오가며 공연될 뿐만 아니라 개막일과 폐막일의 중심 무대를 빛내는 도드라진 작품 하나 볼 수 없었다. 식전행사와 야외무대공연, 극장공연의 총체적 연행 현장성을 한껏 살리면서 중심 공연을 강화하고 주변부 행사를 유기화 시키는 공연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수선했던 축전이었다.

또 쉬운 춤, 즐기는 춤을 축전의 중심부에 배치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초청된 춤꾼들의 기량과 작품들의 질은 턱없이 모자랐다. 현대춤, 발레 등 국내외 초청작들도 해운대 특설무대가 지닌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전혀 살려내지 못했다. 가령 김용걸의 〈그 무엇을 위하여〉는 미묘하게 변화해가는 춤의 흐름을 잘 포착해야 하는 섬세한 솔로 작품으로 소란스러운 야외무대에 적합한 공연은 아니다. 또, 힙합이나 팝핀 등 원초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야생의 춤은 무대보다 거리에서 더 빛나는 춤이다. 해운대 특설무대는 거리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다. 그러기에 이 무대에 잘 어울리는 작품을 세심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대중춤이 가진 화려한 기교와 역동성에 적절한 예술성이 가미된 춤이 해변 특설무대에 어울릴 것이다. 우리의 전통연행이 마당과 대청, 그리고 안방이 가진 공간적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공연양식으로 분류되듯이, 거리와 해변 특설무대, 극장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각각의 연행공간에 적절한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작은 부대행사들은 빼놓고 공연에 관한 큰 로드맵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거리에서는 비보이, 힙합, 팝핀 등의 대중춤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한다. 이때 거리는 일상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연행 공간이 된다. 일상의 공간을 연행 공간으로 만들고, 일상과 연행을 창조적으로 순환시키며 주변부 공연을 유기화 시킨다. 이것은 중심부 공연을 둘러싸면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장소 특정적'인 거리춤의 역동적인 생명 에너지로 대도시 거리의 스펙터클과 대결한다. 장소와 거리의 특성을 살려내는 '장소 특정적'인 거리춤은 극장처럼 폐쇄된 특권적 공간이 아니라 일상에 존재하는 장소로서의 현장에 개입해 세속적 공간이 가진 의미를 전복하는 춤이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에서 이런 거리춤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큰 아쉬움이었다.

2) 해변 특설무대는 극장처럼 완전히 폐쇄된 공간도 아니며 일상의 공간인 거리도 아니다. 이 무대는 확 트인 해운대의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설치된 아주 아름다운 야외무대이다. 이런 공간에서는 파도소리와 바다, 해 질 녘의 몽환적 하늘과 어울리는 세련되고 화려한 대중춤의 역동성에 더한 예술성 있는 작품이 잘 어울릴 것이다.

3) 극장 무대에서는 질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과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젊은춤이 적합할 것이다.



하프타임 (M-note무용단)

아울러 각각의 무대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 프로그래머를 발굴해야 하고, 또 서울과 다른 지역의 춤 축전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를 영화제의 중심부에 배치하며 성공을 거두었듯이 부산국제무용제는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 곧 몽골로이드와 아시아의 여러 소수민족의 민족춤, 민속춤을 소개하는 제3의 코너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기성세대의 춤 그대로 답습하는 AK21 경연 참가작들

경연방식을 도입해 젊은 춤 작가들의 창작의식을 부추기고자 마련된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은 우선 명확한 심사 기준을 세우고 이에 적합한 참가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 경연 무대에 오른 작품들로 미루어 짐작건대 뚜렷한 선정 기준은 없어 보인다. '가려 뽑은' 경연 참가작들은 기존의 춤을 그대로 답습하며 관습화된 몸짓을 반복할 뿐이었다. 새로운 몸짓과 감각은 부재한 채 공허한 아이디어와 판에 박은 듯한 낡은 감성만 남발했다. 기존의 춤이 구축한 견고한 틀에 균열을 내는 패기 있고 실험적인 작품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M-note 무용단의 〈하프타임〉(신승민 안무)은 모범이 될 만한 독특한 작품이었다. 구음과 음악의 절묘한 화음을 배경으로 시공간적 경계지대를 노니는 춤꾼들의 섬세한 움직임의 조화가 일품이었고, 멈춤과 틈에 대한 농밀한 인문학적 사유를 선명하게 표현하는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수작이었다.

춤은 원초적 생명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운동으로부터 솟아나는 출산적 힘의 몸적 유희이다. 그러기에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온갖 형태의 도시적 스펙터클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시민의 꿈이나 욕망, 몽상이나 판타지를 온전하게 담아내고, 스펙터클의 매혹을 제압하면서 다른 감성의 영역을 개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부산국제무용제를 기대해본다. ─



미술

# 리얼리즘의 귀환: 부산사진계의 두 거목을 만나다

‘정인성, 부산사진의 여명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2011. 12. 29 ~ 3. 18)’,  
‘임응식과 한국현대미술 (부산시립미술관 2012. 2. 29 ~ 4. 25)’  
전시 리뷰 혹은 사진 이야기

이미정

경성대 철학과 외래교수  
고은사진미술관 <부산사진의 재발견: 기억과 트라우마>展,  
<정인성, 부산사진의 여명>展, <배동준, 근대적 풍경의 탐구>展 공동기획

사진제공 부산시립미술관(임응식 사진전 스케치)



©정인성, 대곡, 1960

2011년은 부산사진사에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 부산사진의 역사가 최초로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전시의 형태로 꾸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부산의 사진가들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사진의 1세대인 정인성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다. 임응식과 정인성이 활발한 활동을 했던 1950년대만 해도 부산사진은 한국사진의 중심축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 피난지였던 부산에 사진가들이 대거 모여 전국적 규모의 사진단체를 만든 것이 그 첫 번째 계기이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응식과 정인성이 중심이 되어 펼쳤던 ‘생활주의 리얼리즘’<sup>1)</sup> 사진운동의 영향이다. 따라서 부산에서 정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가 열리고 뒤이어 임응식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까지 열리게 된 것은 반가움을 넘어 부산사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린 ‘정인성, 부산사진의 여명’전은 필자가 기획에 참여했던 전시이므로 전시에 대한 비평보다는 전시의 맥락과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전시는 부산사진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정인성을 재조명하는 것이 목표였다. 1930년대 말에 사진을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정인성의 작품 세계는 리얼리즘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부산사진사 뿐만 아니라 한국사진사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는 미술관의 맥락에서 재구성한 정인성의 사진과 정인성이 생전에 사진집을 만들기 위해 직접 선택했던 빈티지프린트를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빈티지프린트는 연대순으로 배치하여 관람객이 정인성의 작품세계가 변화되는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정인성은 비연출, 스냅샷이라는 리얼리즘 사진의 형식과 흑백의 섬세한 계조와 자신만의 톤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빈티지프린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인성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프린트한 작품과 비교하여 트리밍이나 미묘한 톤의 변화를 찾을 수도 있다. 다른 섹션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시대적 상황과 민중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생활주의 리얼리즘’과 그러한 기록성을 토대로 사진의 표현방식에 집중한 ‘조형적 리얼리즘’, 그리고 즉물성이 두드러지는 ‘사물의 힘’이 그것이다.



©정인성, 보수동, 1952



©정인성, 영도다리 부근, 1952



2)  
"정인성의 작품세계에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는 리얼리즘에 대한 집요한 탐구, 역광표현과 완벽한 구성을 통한 조형미의 추구 그리고 사물 자체의 본질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형식에 대한 분석적인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로서의 태도이다. 폐허가 된 집 앞에서 앉아 있는 여인네와 피난촌의 아이들 그리고 고단한 노동자들, 척박하고 고달픈 현실을 찍은 사진에서마저 드러나는 따뜻하고 넉넉한 느낌은 정인성의 사진이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그의 사진이 시선을 끄는 이유이다." (이미정, '정인성, 부산사진의 여명' 전 기획글 중에서)

3)  
이경민, '임응식과 더불어 한국사진사를 건다', 『임응식,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 국립현대미술관, 2012 참조

정인성의 사진은 현실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도 빛을 탁월하게 활용하고 절묘한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조형미를 추구한다. 현실의 객관적 묘사와 현실을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작가의 시선이 결합하는 방식은 리얼리즘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리얼리즘 사진은 사진대상으로서의 현실과 그것을 재현하는 사진의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진의 대상은 그것을 포착하는 주체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즘 사진은 외부세계를 감각과 사유를 통해 하나의 상으로 파악하는 지각과 내 안의 존재를 통해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결합되는 장이다. 이는 정인성 사진의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하다.<sup>2)</sup>

임응식은 이미 한국사진계의 대부분 자리 잡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물이다. ‘임응식과 한국현대미술’전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임응식,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전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재구성한 전시다. 서울의 전시와 달리 부산사진에 많은 할애를 했는데, 특히 사진과 회화작품을 연결시킨 점이 인상적이었다.

전시는 총 4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193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임응식의 작품을 다룬다. 일제강점기에 수용되어 제도화 되었던 예술사진(살롱사진)에서부터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사진이나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 모더니즘 계열의 사진을 아우르는 임응식의 사진활동은 한국사진사의 전개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3)</sup> 그런 의미에서 제1부는 임응식의 사진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섹션이다. 그래서일까?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살롱사진에서 포토그램(림스그램) 등의 사진적 실험을 거쳐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던 서울의 전시와 달리, 다른 입장에서 촬영된 고건축 사진과 명동사진까지 포함된 제1부는 산만할 뿐 아니라 맥락을 잃어버렸다는 인상을 주었다.



임응식 사진전 (부산시립미술관)



제2부는 임응식이 부산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사진들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부산사진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당시의 사진 흐름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임응식의 작품은 예술사진에서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3부는 임응식이 찍은 초상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은 주로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이다. 임응식은 초상사진에서도 인물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인물을 둘러싼 배경을 같이 보여주면서 다양한 프레임 구성했다. 특히 인물의 자연스런 표정이 잘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임응식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필 수 있어 흥미롭다.

제4부는 임응식이 찍은 화가의 초상사진과 그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박생광, 오지호, 유영국, 장우성 등 미술계의 거장들 사진과 나란히 전시된 그들의 회화작품은 관객에게 상상의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사진과 회화의 배치도 독특했고 화가의 실제 모습과 작품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다. 비록 이 전시가 사진이 회화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임응식과 정인성, 이 두 거장의 전시는 우리에게 사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더 이상 사진이 현실을 담아내는 도구나 현실 인식의 탁월한 수단이 아닌 오늘날, 언어로 구성되기 이전의 대상에서 비롯되는 아날로그 사진을 탐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사진은 매체의 특성상 상상계로 표상되거나 상징계로 의미화 되지 않는 실재계의 영역을 드러낸다. 사진으로 재현된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일상의 삶과 지각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는 미묘한 차이를 생성해낸다. 사진에서 리얼리즘이란 사진가의 시선과 현존하는 대상이 스스로 드러내는 우연적인 힘의 적절한 균형에서 온다. 이 두 거장의 사진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균형 때문이다. ─

임응식 사진전 (부산시립미술관)





생활문화

변화를//시도하는//대학축제////////

**이광혁**  
10년차 대학생이자 부산대학교 축제를 5번 넘게 준비해온 장(長)학생이다.  
**前** 2006년 부산대 총학생회 문화국장  
2011년 화춘프로젝트 ‘비가오나 눈이오나 100일 릴레이 거리공연’ 기획, 진행 책임자  
2011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야제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  
2011 부산대학교 사월제 ‘사월스타’ 총 기획 및 진행  
**現** 인디밴드 ‘스카 웨이커스’ 대표  
‘신진문화그룹 007뿡’ 사무국장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청년문화팀장



부산대 축제의 재구성

하늘에 떠있는 열기구와 행글라이더, 광장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 운동장에 옹기종기 모인 주막들. 예전의 부산대 축제와는 뭔가 다른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정문 앞에는 명석이 깔려있고 50여명의 풍물패가 DJ와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 모두가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있으니 누가 공연자고 누가 관객인지 구분이 안 된다. 다른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의 무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가 기획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부산대 축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주목하고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은 기획이었다. 대형가수 한 명 안 부르고 축제를 치룬 것, 캠퍼스 내에서 천대 받고 있는 전통문화(풍물패)를 재조명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어낸 것,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금정산 막걸리 축제팀과의 교류사업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점이 곳곳에 존재한다. 총학생회의 한 해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와 실험을 시도해야만 했던 이유와 배경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축제 본연의 의미와 대동제의 탄생

축제의 유래가 제의에서 왔든, 유흥에서 왔든 그런 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고대의 축제란 그 마을 사람들의 잔치였음에 분명하다. 어떤 특정한 날이나 사안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며 벌어지는 파티. 음식과 술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음악과 춤 또한 빠질 수 없다. 잔치에 쓰일 음식과 술, 음악과 춤은 모두 자체생산이며 모두가 달라붙어 함께 또 즐겁게 준비한다. 마을 사람 모두가 생산자이자 만든 것들을 향유하는 소비자이기 에 그 둘은 딱히 구분되지 않는다.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것. 축제는 문화든 예술이든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80년대 대동제를 만들어냈던 선배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쌍쌍파티와 체육대회, 메이퀸 선발대회 등 서양에서 온 콘텐츠 중심의 대학축제를 풍물패 중심의 마을굿이나 줄다리기와 같은 농민 공동체 놀이 위주의 행사로 전환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던 서양문화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이질감을 느끼던 대학생들에게 ‘대동’이라는 화두와 함께 ‘전통’스러운 콘텐츠들을 제시했던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시기적절한 시도였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과 함께 ‘대동제’라는 형식의 축제문화는 전국에 퍼져나갔다.





////////////////  
대학축제의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에는 대학축제에 연예인이 출연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섭외비가 총학생회 1년 예산에 비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팀당 1,000~4,000만 원) 총학생회마다 이들을 섭외하지 못해 난리다. 올해 축제를 예로 들어보자. 연세대 축제 ‘아카라카’에는 요즘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태티서, 배치기, 싸이, 바다, 김태우 등 많은 가수들이 출연했고, 고려대 축제 ‘입실렌티’에도 마찬가지로 태티서, 배치기, 10cm, 시스타, 시크릿 등 TV 스타들로 가득 채워졌다. 부산지역 대학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해양대의 경우 작년 애프터스쿨에 이어 올해는 시스타, 정성대는 작년 소녀시대에 이어 올해 포미닛. 예산의 규모가 작을 뿐이지 TV쇼를 모방한 축제의 형태는 마찬가지였다.

한 가수 당 3곡에서 많게는 5곡 정도. 맛만 보는 공연으로 끝나지만 ‘축제의 흥행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말한다. 정말 그럴까? 대학생 전문잡지인 캠퍼스라이프가 지난달 남녀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축제가 재미없다고 답한 사람은 51%나 됐고, 대학생 가운데 46%가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는 축제에 연예인 섭외비만 1억 원이나 쓰는 지금의 현황은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로 따져 봐도 너무 소모적이다.



////////////////  
부산대 축제에서의 다양한 시도들

올해 부산대 축제 기획팀은 기획회의 초반부터 대중가수를 부르지 말자고 의기투합을 했다. 연예인을 초청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가능성은 있으나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동아리나 학내 공연팀들이 대형가수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리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다분히 일방적인 행사가 되기 마련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연예인 섭외를 과감히 포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으려 애를 썼다.

축제 첫날 정문에서 진행된 ‘토종로맨스’행사가 그런 대안으로 적절한 예가 아니었나 싶다. 학교에서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부산대 단대 풍물패 연합’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기획하였다. 관객들이 공연을 더 편히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차광막을 치고 명석을 깔아놓았다. 금정산 막걸리 축제팀과 연계하여 막걸리를 지원받아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막걸리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서 파전을 굽고 두부김치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풍물 공연만 할 경우 식상할까봐 자메이카 음악(레게, 스카)을 연주하는 밴드 ‘스카 웨이커스’와 ‘윈디 시티’를 초청하여 재미를 더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과 자메이카의 전통음악이 만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명과 흥이 터져 나왔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대동의 장이 연출되었다. 모인 사람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늦은 밤까지 풍물소리와 강강술래에 취한 채로 축제를 만끽했다.



////////////////  
‘부산대 탐밴드’에는 부산대 밴드 15팀이 예선을 치루고 8팀이 본선에 올랐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 점이 좋았고 당일 행사의 퀄리티 또한 수준급이었다. 부산지역 인디밴드들을 초청하여 공연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뮤지션들과의 교류를 시도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문행사 이외에도 광장에서 펼쳐진 학내 동아리들의 거리공연과 ‘자취생 라면 경진대회’, ‘보물찾기’ 등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낸 이벤트들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축제의 홍보를 위해 넉터 주변에 설치한 놀이기구들도 대성황이었다. 열기구와 행글라이더 체험기구, 공기풍선 미끄럼틀은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 소비향락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주막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학내 곳곳에 펼쳐져 있던 주막을 넉터로 쏙다 모아서 진행한 것. 한 곳에 모아놓으니 보기도 좋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기도 좋아서 1석2조였다.

3일 동안의 축제기간 중 TV속 스타들은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지만, 흥행은 성공이었다. 학내 구성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여러 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것이 먹혔다. 이번 부산대 대동제의 결과를 보며, 축제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철학이나 의의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참여나 흥행만을 내세우고 근시안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면 앞서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없다. 조금만 신경 써서 노력해도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길

부산대학교는 부산의 가장 큰 국립대이자 금정구의 중심지역이다. 부산대학교는 언제나 부산의 자랑이었으며 시대를 선도해왔다. 부산대 축제 역시 이 지역 사람들의 굉장히 큰 관심거리이다. 이번 부산대 축제가 한국사회 대학축제들의 일편적인 흐름에 다른 대안을 제시한 좋은 예로 작용했다면, 다음번엔 부산지역에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더 다양하고 더 크게, 학생을 넘어 지역민까지 포괄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이번 부산대 축제의 기획팀으로 참여한 것이 후일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글을 마칠까한다. ─





문학 · 출판

# 기억과 향유, 그리고 지속하는 문화운동으로서 문학관을 생각하며

요산문학관의 경우

정훈  
문학평론가  
2003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등단  
평문집으로 『시의 역설과 비평의 진실』이 있음

사진제공 요산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추리문학관



요산문학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가 1995년부터 이루어진 뒤로 오늘날까지 지역문화행정은 여러 쇄신과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실 '문화'란 것은 정부나 지방행정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경우 효율성과 성공적인 모습을 바라기는 힘들다. 관 주도의 정책들이 대개 용두사미로 끝나기 십상이었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나 자치단체 수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측면 또한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는 어느 특정 세력의 주도로 꽃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밑바탕에 놓여 있어야지만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같은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문학관 역시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다. 문학관은 지역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대체로 다른 부문의 수도권 집중화 경향과 달리 문학관은 전국에 골고루 산재해 있다. 그것은 지역 자치의 확산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한 표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학관 건립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지역 활성화라는 이중의 목적'<sup>1)</sup>과 관련돼 있다.

1)  
김중우, 「한국 문학관의 운영 현황과 전망－프랑스의 경우와의 비교」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2008. 04), 87쪽

설립 동기와 취지가 어땠는지 간에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문학관협회에 가입해 있는 문학관은 전국에 49곳이다. 이곳 부산의 경우에도 요산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추리문학관 세 곳이 있다. 문학관의 존재는 기억해야 할 과거의 문학적 위상이나 작가, 그리고 작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요산문학관은 요산 김정한의 문학적 성취와 작품의 주제가 마땅히 우리가 계승하고 기념해야 할 의의를 충분히 지닐 필요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주홍문학관은 마찬가지로 필요성과 의미를 지닌 향파 이주홍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것으로 두 곳은 부산의 대표적 문학관이다. 부산 문단의 두 거두인 향파와 요산 선생의 문학이 오늘날 두 문학관의 설립에 최초의 동기가 되었다면, 응당 이들의 문학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 지나는 현재성으로 마땅히 시민들의 교양 함양에 이바지하는 바가 커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두 문학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은 보편성을 띠지만 작가가 쓴 작품 공간이나 장소, 그리고 작가가 활동한 지



요산문학관





역 공간은 분명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장소'는 지역민들의 구체적인 생활공간이다. 이 생활공간이 문학작품의 보편성과 만나 빚어내는 것이 바로 문화적 향유이다. 문화적 향유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지역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문화적 스펙트럼과 문화 수준의 충위를 매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요산문학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사단법인 요산기념사업회가 시설소유주로 있는 요산문학관은 국고와 민간의 재원을 바탕으로 2006년 11월에 개원하였다. 다목적 강당과 북 카페, 전시관 , 그리고 창작공간이 여의치 않은 지역작가를 위한 집필실을 두고 있다. 전시관에는 김정한 선생이 소장했던 책들과 작품을 비롯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해마다 문학 강연과 시낭송회, 그리고 요산 김정한 문학제를 시행한다. 또한 요산창작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운영의 형식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문학관과 별 차이가 없다. '문학관'의 특성상 지역 문인들이 자주 찾으며, 행사 또한 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들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장소의 특수성으로서 부산과 요산의 생가, 그리고 금정구 주민을 비롯한 부산 시민의 인지도 등 다양한 문화 향유의 관점에서 문학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문화의 향유는 지나간 작가에 대한 '토포스(topos)' 적인 관람 행위를 불식하고 지양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학관에서 보이는 여러 행사의 심지는 '김정한'이 상징하는 문학사적 위치와 역사성에만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다. 요산 선생의 반세기가 넘는 문필 활동은 그런대로 우리 문학사에 굵직한 획을 마련했고, 그 정신 또한 오롯이 우리들에게 넘겨야 할 정신 유산인 것만은 틀림없다. 문학관과 시민을 이어주는 역할은 단지 지역문화의 활성화방안을 내세운 문화행정과 문단/문인의 교육 및 홍보에만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주홍문학관



문학관이 이 시대의 참신한 문화운동으로 발돋움하는 지점을 고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다. 전시되는 작가의 유품과 기록물들은 그것대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문학 자료의 보존과 전시는 지역정체성의 확산에 도움을 주지만, 지역정체성의 정립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이뤄져야 한다. 추상적인 문화 활동으로서 문학의 존재가 사람들의 개성과 보편적인 욕구, 그리고 더욱 품격 있고 진실한 삶의 공간을 희구하는 의식과 결합될 때만이 문학관의 존재 의미는 커지지 않을까. 여가 시간에 영화관이나 미술관에 가지 않고 굳이 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몇몇 연구자들을 빼면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작가'의 문제로부터 탈피하는 곳을 '문학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곳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삶의 영위, 다시 말해 작가의 아우라에서 생겨났지만 알게 모르게 다각적으로 퍼지는 문화의 기운으로서 시민들의 지속하는 창조적인 욕구로부터 문학관의 활용도를 재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요산의 정신과 시민의 문화체험을 직조하는 장으로서 문학관의 현재성은 뚜렷해진다. 죽어있는 문학관을 넘어서서, 그래서 한 작가를 기념하고 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화운동으로서 문학관의 위상과 윤곽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리문학관





## 영화

제 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참관기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전병원

서울예술대학에서 극작을 전공하였고 월간문학 편집기자를 역임했다.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영화석사, 전북대학교에서 영화영상기획 박사수료를 했다. 시나리오 작가로 〈패밀리마트〉, 〈숨〉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한국독립영화제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사진제공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지난 5월 14일에 막을 내렸다. 나는 부산 아시아단편영화제로 치러진 2009년 26회 때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외형을 확장했던 27회, 28회 그리고 올해까지 지난 4년간 매년 영화제를 다녀왔다.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판단하자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만의 색깔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달라졌다. 영화제 기간 매일 밤마다 있었던 뒤풀이를 가장한 술자리의 화제가 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진 잠깐 영화제가 왜 이래라는 불만과 몇 마디가 오간 후 그간의 안부를 묻거나 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모인 자리가 아닌 그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자리들이었다. 한데 올해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모였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화제로 자리들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 선언적인 개막작

영화제의 개막작은 영화제의 얼굴이며, 그 해 영화제를 대변하는 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개막작 선정은 분명한 외침을 지닌 선언적인 선정이었다. 소니마주형식의 씨네콘서트로 진행된 개막작 상영은 인상적이었으며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영화제의 개막작보다 훌륭했다고 말하고 싶다.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미에르 형제의 초기작 단편모음과 페르랑 레제, 더들리 머피가 공동연출하고 만 레이가 촬영에 참여했던 〈발레 메카닉〉(Ballet mecanique, 1924)은 영화의 태동이 지닌 의미와 영화라는 예술이 지닌 무한한 확장성을 드러내는 선언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개막작 선정은 단편영화제라는 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지향하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읽힌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영화의 본질에 충실하며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화를 옹호하겠다는 선언문이나 다름없었다.





### 친구처럼, 선배처럼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많은 영화제가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클래스는 영화의 발전(미학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대가라고 불리는 영화인을 초청하여 그들의 영화세계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거장들이 일방적인 강연형식의 진행이 대부분이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마스터 클래스는 대화하듯 상호간에 의견들을 주고받는 자리였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제 습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선배로서 같은 영화인으로서 가식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카브레라 감독의 모습은 마스터 클래스라기 보다는 ‘힐링 캠프’같은 분위기였다. 진정한 마스터 클래스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녀와 함께했던 마스터 클래스 또한 잊지 못할 것이다.

### 함께하고자 했던 폐막식

폐막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타국의 수상작 감독들과의 전화인터뷰와 수상소감들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영화제의 노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제란 영화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영화제에 참여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빛이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었다.

### 기본에 충실했던 영화제

영화제라는 게 ‘이래야 된다’라는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영화제마다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다른데 일방적 기준으로 어떻게 영화제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에 ‘영화’가 있다고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막식 때 보았던 레드 카펫은 너무나도 부당스러웠다. 출입구 앞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순간 민망하였다. 단편영화 감독과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나 관계자들 또한 레드 카펫을 밟고 지난다고 안 될 것 없고, 하루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도 있겠



지만 이는 엔터테인먼트와 상업적 목적이 난무하는 영화제에서 얼마든지 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편영화제만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사족 – 아쉬웠던 것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과 작품들로 인해 행복했던 영화제였다. 프랑스 국립단편영화 에이전시 관계자와 함께했던 심포지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음에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이번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즐거웠던 것은 매일 매일 사랑스러운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이 출품된 것은 그간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노력해 온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오퍼레이션 키노’ 프로젝트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과거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과 부산이라는 지역에 영화제를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여전히 진행상의 미숙함이 드러난다. 국제영화제임에도 관객과의 대화시간에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광복동과 이원화된 상영장의 불필요성, 자유스럽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여전히 경직된 느낌으로 준비된 개폐막식 등은 영화제 측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라 판단된다.

개인이든 단체든 발전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좀 더 좋은 영화제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29회 영화제를 마친 이 시점에 내부적, 외부적 평가를 통해 장단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내부의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영화제 기간 중에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먼저 포기하지 않고, 먼저 고개를 돌리는 일 없이 애정어린 눈길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바라보고 다시 찾아 갈 것을 약속한다. —





## 연극

## 해석의 확장성

극단 달랑 “10F”를 관극하고

이재현 작 / 조기왕 연출

LIG 문화재단 기획프로그램

2012년 6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LIG 아트홀 부산

## 김지용

극작가/연출가

1977년 부산 출생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출강

사진제공 LIG 문화재단



LIG 문화재단 (Photographed by 김상협)

## 상징과 기호

내가 어릴 적에 생일을 맞은 친구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 그 친구의 집은 4층이었다. 전화로 ●●아파트 4층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그 아파트로 찾아갔는데 계단으로 4층을 올라가니 501호가 있었다. 그래서 한 층을 내려갔는데 301호가 나왔다. 당시 나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친구의 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시끄러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국 친구 집을 찾아내었다. 친구의 집은 511호였다. 대한민국 사회가 4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겪은 내 개인적인 해프닝이다.

이 연극 ‘10F’는 10층을 찾아 나선 세계사 과목 선생과 9층의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벌이는 실랑이를 액션 아이디어로 삼고 있으며 연극이 종료될 때까지 그 설전은 지속된다. 선생은 10층으로 가는 문이 잠겨있다고 설계사에게 말하지만 설계사는 그 문은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고 9층이 가장 꼭대기라고 설명한다.

인식론적 사고 안에서는 잠겨있는 그 문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과연 10층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옥상인 것인지 말이다. 그러므로 문을 열지 않은 채 벌이는 이런 실랑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극이 제공하는 모든 논쟁은 치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자칫 관객을 멀어지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작품 안에는 다양한 상징과 기호들이 배치되어 있다. 두 인물의 직업, 선생이 가르치는 과목이 세계사라는 것, 9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필 건축 설계사무소라는 것. 선생이 10층을 찾게 된 이유가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 자신의 눈을 부시게 한 장난을 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 등이다.

세계사, 즉 인류의 역사는 늘 변증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이 변증법은 이상과 현실의 대립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현재의 상위에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혹은 현재에 축조되어 있는 제도와 형식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조리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인류 전체를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차례로 이행하게 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한 것은 작품의 주제를 유추해내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LIG 문화재단 (Photographed by 김상협)





## 9층과 10층 사이

간단히 말해서 이 작품의 논쟁은 9층과 10층의 중간에 있다. 건축 설계사무소의 직원은 지금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준다. 요컨대 건축, 건설로 대변되는 확장, 밀집적인 형태가 현세를 해석하는 키포인트인 것이다.

이러한 두 인물의 충돌은 작품해석에 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의미론적, 목적론적인 입장과 논증적, 방법론적인 입장의 대립이다. 경험에게서 아직 제공받지 못한 지평의 너머를 눈치 채고 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선생과 경험으로 인식된 부분까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축설계사는 그 사고방식에 있어 서로의 대척점에 위치한다. 한 부류의 인간들과 또 다른 한 부류의 인간들이며, 한 인간 속에 내재하는 두 개의 속성이다.

또 한 가지의 재미있는 상징은 선생의 대사 속에 있다. 10층에서 어떤 사람이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 자신의 눈을 부시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악의적인 장난,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데에 그 특별한 점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10층에 있다는 말이며, 10층에 있다면 그 사람은 9층 이하에 있는 인간과는 레벨이 다른 인간임을 은연 중에 암시한다.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를 확장한다면 우리 인간이 구가한 이 모든 제도와 물질적, 정신적 산물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될 수 있겠다. 인간만의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밀한 행동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서 이뤄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이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은 '신과 인간' 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치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와 같이 해답을 마련해놓지 않고서 행위자들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을 변조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놓은 희곡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희곡이든지 저러한 희곡이든지, 관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지에 상관없이 행위자들의 해석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이 크게는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가 이 사회의 거울임을 자처하며 존중받아 온 것에 대한 책무이며, 작가는 극장에 모인 관객에 대한 예의다.

LIG 문화재단 (Photographed by 김상협)



LIG 문화재단 (Photographed by 김상협)

## 10층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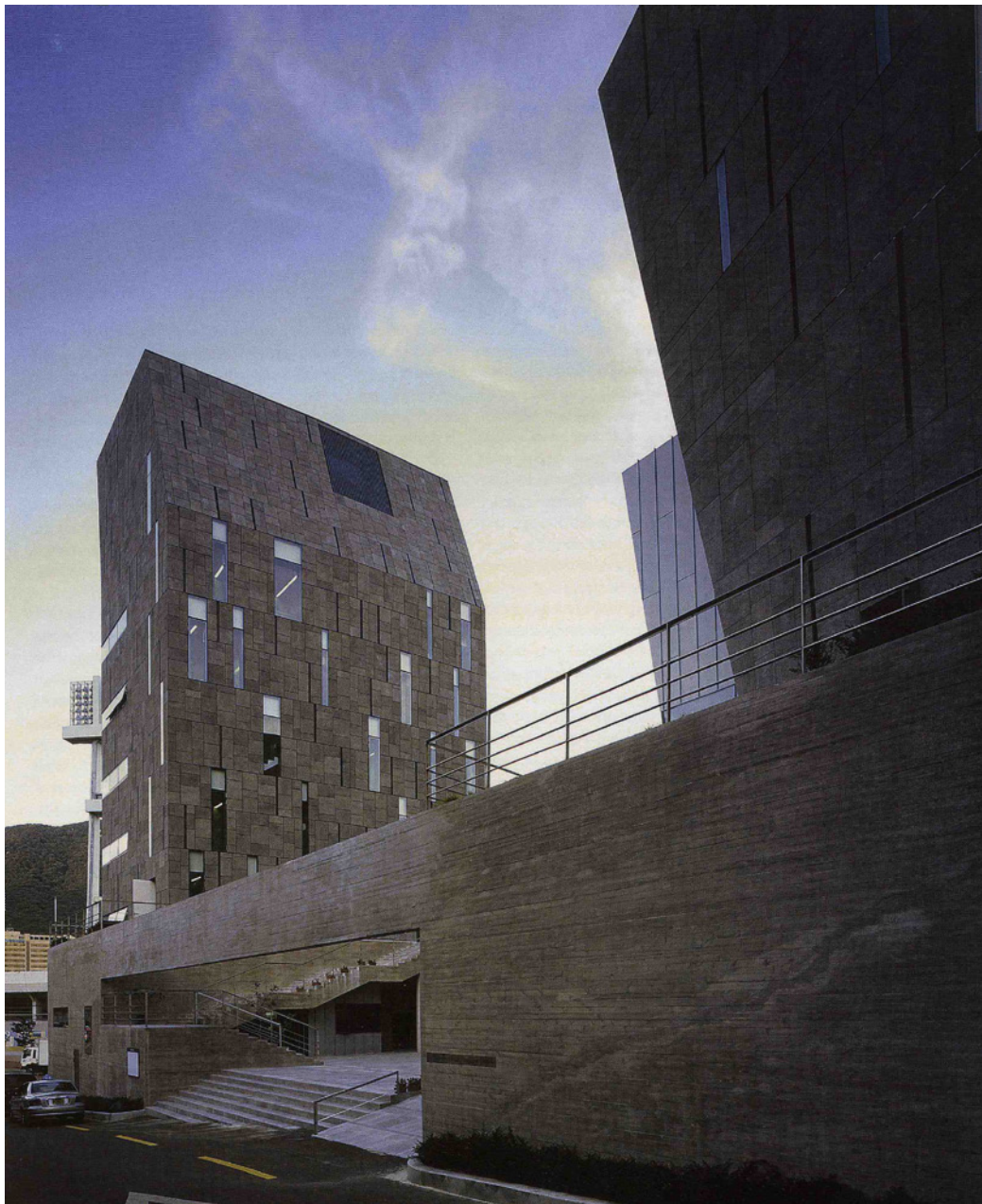
희곡이 가진 개방성에 화답하듯 무대는 객석을 4면으로 꾸며 관객이 앉은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관객이 볼 수 있는 시야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앉은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되 최대한 시야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작품에서는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정적인 동선이 다소 아쉬웠다.

굳게 닫힌 철문을 무대화시켜 준 것은 구체적이어서 일면 좋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10층으로 가는 철문이 시각화되어 10층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원작과 달리 남자 설계사가 아니라 여자 설계사라는 점도 약간 의아했다. 일이 끝난 시간, 여자만 혼자 남은 큰 사무실에 나타난 중년의 아저씨의 이미지가 물입을 방해했다. 남자와 여자는 그 관계가 어찌되었든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틀리다. 그러므로 팽팽한 논쟁이 아니라 여차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머리 속을 계속 맴돌았다. 특히나 10층으로 가고야 말겠다는 남자의 의지가 세면 세질수록 그 불안감은 더 커졌다. 절박한 상황에서의 인간은 성별을 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창문을 통해 10층으로 도달한, 혹은 올라가고 있었을 선생은 추락한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명과 거꾸러진 배우의 부드러운 몸짓이 추락임을 나타내었다. 시지프의 신화가 연상되었고, 이 극이 사실적인 연기와 무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용이나 주제적으로는 부조리극임을 명징하게 드러내주는 명장면이었다. 그런데 내가 앉은 자리에선 추락하는 배우의 표정이 보이질 않아 너무나도 아쉬웠다. 그 표정에 이 작품의 모든 것이 담겨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표정을 통해 이 공연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





골목에서의 외관

## 강혁

경성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및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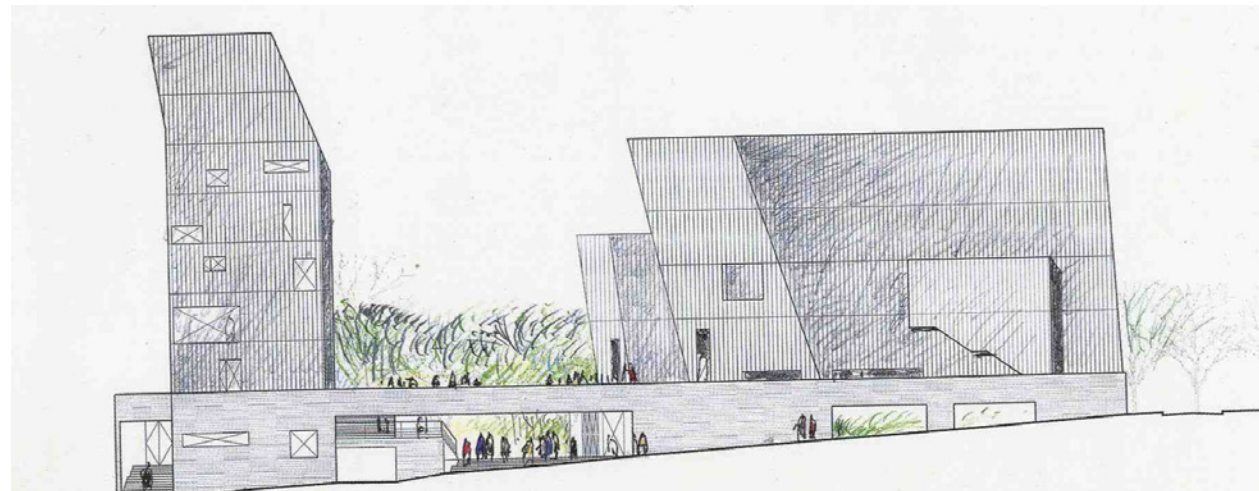
미국 MIT건축대학 방문 연구원

미국 신시내티 도시건축 대학 객원교수

월간 이상건축 주간

부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부산시립미술관 자문위원 등 역임

사진출처 'SEUNG H SANG' C3사 발간 승효상(저) 김종오(사진), 2010



구덕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승효상의 오뎅세이적 귀환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건축가가 고향을 떠나 긴 방황과 성장의 시기를 보낸 후 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고향 땅에 집 지을 기회를 갖게 됐다는 일은 그다지 대단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선친이 세우고 지었으며 자신이 다니고 컸던 교회에, 그러니까 개인사적으로 소중한 기억이 아로새겨진 터에, 새 성전을 설계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꽤나 드라마틱하다. 건축가는 “교회의 마당은 내 놀이터였고 종탑의 다락은 내 공부방이었으며 나는 교회 마당 한 칸의 무화과나무와 함께 자랐다.”라고 회고한다. 상경하면서 예배당에 앞드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떠났던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나서 새 ‘부대’를 얻기 위해 그를 다시 불렀다. 실로 정신적 귀향이라고 말해 부족함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은혜이고 섭리라는 고백이 나올만하다.

우리는 승효상이 교회건축, 나아가 종교 건축에서 달성한 성취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나 종교 건축에 대한 그의 생각과 감수성에 미친 구덕교회의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건축가는 자신의 교회건축 디자인의 원점으로 구덕교회가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구덕교회 건립이 건축가에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나아가 부산의 건축문화와 교회건축사에 차지할 비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산에도 물론 큰 교회가 있고 잘 지은 교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승효상의 구덕교회는 다른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교회건축 자체의 성과를 넘어서는 지역과 도시에 대한 배려이다. 구덕교회에는 건축가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사려 깊은 대응이 스며있다. 부산 도심의 유서 깊

은 동네에, 한때는 우수한 중산층 거주지였으나 이제는 공동화 현상으로 쇠락의 기미도 없지 않은 곳에, 새 교회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변 경관을 일신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덕교회는 한국 도시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선한 형식과 풍경의 제시라는 미덕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이란 특별한 형태를 말함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회집(congregation)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에서이다. 풍경이란 도시 속에 교회의 자리 잡음(orientation)과 드러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맥락에 초연한 배타적인 영역을 성(聖)의 이름으로 구축하는 일이 긍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동시에 세속 도시에 영합하는 알팍한 기호이자 상업 시설처럼 보이는 교회의 건립이 바람직한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구덕 교회는 제반 도시적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품격 있는 종교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미덕을 지닌다. 지역 사회에 현대의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주변과 성별되는 독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덕교회라는 이름의 장소의 형성은 성과 속이 일상 가운데 만나는 계기를 제공한다.

구덕교회가 들어설 부지 조건은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부지는 좁고 길며 전면 도로는 속도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긴 부지 겹으로 난 길은 부산의 많은 길이 그렇듯 경사를 이루며 올라간다. 건축가는 부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볼륨과 기능을 배치했다.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콘크리트 기단을 두고 그 위에 교회가 놓이는 형국이 되었다. 하부 구조는 지역과 신도를 위한 친교와 서비스 기능에 할당하고 상부에는 교회 본



래의 시설 공간이 놓인다. 결과적으로 긴 부지 가운데 중정 마당이 놓이면서 탑상의 건물과 본당 건물이 양편에서 마주보는 명료한 구도이다. 두 건물 사이의 중정 마당은 도시의 길로부터의 진입과 본당으로의 연결을 유도하는 매개 공간인데 아무런 조경도 없이 비워놓은 공간이다. 인위적인 채움 대신 비움을 통해 무형의 공간이 야기하는 정서와 울림을 기대하는 것이 건축가 승효상의 장기임은 잘 알려져 있다. 구덕교회에서도 예외 없이 규모는 크진 않지만 밀도와 긴장감을 갖춘 중정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곳이 만남과 친교, 그리고 행사의 공간으로 전용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교회를 짓는 이는 오랜 교회건축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자 지상에서 천국의 재현인 교회는 특정한 공간 유형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근대성의 도래와 더불어 교회건축은 장식과 형상 없이 모던한 건축 언어로 성(聖)과 신비를 표상해야 한다는 벽찬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여기에 한국의 현대 도시교회는 비싼 지가에 협소한 부지, 복잡한 공간 프로그램, 심지어 주차장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건축해야 하는 지경이다. 한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강당형/체육관형 교회나 사무실(오피스)형 교회는 이런 사태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안일 것이다. 구덕교회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건축가가 실로 이들 제반 요구 사항을 슬기롭게 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구덕교회는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외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한눈에 교회임을 알아볼 만큼 교회로서 동일성(identity)을 지니고 있다. 전면 도로로 솟은 탑상의 볼륨은 교회의 종탑을 연상시키며 십자가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후면의 볼륨이 예배당임을 예상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양자 사이의 중정 마당은 역사적 교회의 아트리움과 연결되며, 다소 희박하지만 둘러싼 회랑의 분위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중정마당과 본당 입구



중정 마당에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본당 채플로 가는 행로를 형성하면서 세속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진입이 갑작스런 전이가 되지 않게 한다. 예배당 문을 열면 바로 세속과 마주치는 한국교회 일반의 공간적 이행은 그 당혹스런 설정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좁은 부지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계단을 꺾어가며 상승하는 기다란 행로를 통해 예배당에 이르게 함은 교회건축의 오랜 공간적 주제가 바로 ‘길’라는 사실을 건축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길은 기독교의 교리이자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에 대한 공간적 은유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설정이 그가 수업했던 김수근의 공간사무소 시절에 담당했던 교회와 성당 설계에서 비롯한 것이며, 놀랍게도 어릴 적에 구덕교회를 올라가던 그 경사진 언덕길이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회고 속에 소급적으로 깨닫게 된 사실일 것이며, 구덕교회의 설계에 재귀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수밖에 없다. 여하튼 성스러운 공간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목적인 예배의 공간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그의 입장은 한국 교회건축의 현실에서 경청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본당 예배당의 공간이 성소로서 소홀한 것은 아니다. 사회 및 지역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현대 교회에서도 예배의 처소는 여전히 경건해야 할 것이며 세속의 삶에 지친 신도들에게 정신적 귀의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덕교회 예배당은 엄숙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정결하면서도 편안한 성격의 공간으로 규정된다. 금욕적이기는 하나 단조롭지 않은 것은 빛의 적절한 유입으로 인한 것이며, 빛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부의 질료는 물질성을 초월한 깊이를 부여받고 있다. 예수의 육화(incarnation)가 상징하듯 지상의 사물의 영적인 것으로의 질적 변환은 교회를 지으면서 기대하는 사건이자 기적이며 교회건축의 변치 않는 이상(ideal)이다. 모든 교회건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지만 모던한 건축언어로 실현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구덕교회에서 그것은 절제된 형태와 재료로 구현되고 있기에 개신교회 본연의 정신에 합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구덕교회 본당의 내부는 적절한 공간 스케일과 비례, 재료의 순수성을 살린 벽면, 추상적이지만 탄탄한 형태 요소, 그리고 변잡하지 않은 가구 등으로 형성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콘크리트 벽체로 떨어지는 상부의 빛과 울퉁퉁 들어간 장방형 벽감의 고창에서 뿜어 나오는 빛이 그런 감을 더 고조시킨다. 벽감 위에 걸쳐진 가느다란 십자가는 예배당임을 지시하는 최소한의 징표로 기능하는 데 위치와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다.

군림하는 듯한 여느 한국교회들의 십자가와 사뭇 대조적인 것이다. 수직성을 강조하는 천장은 위압적이지 않고 천상과의 교통이라는 교회건축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낮은 천장의 예배 공간이 인간적이라는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좁고 낮은 공간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높고 시원한 공간은 종교 건축이 아니더라도 심정적으로 더 호소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식당, 북 카페, 세미나실, 기타 서비스 공간의 질적 수준이다. 예배 이외 친교와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한국교회들은 여전히 본당 이외의 공간을 부차적인 것으로 도외시하거나 평범하고 저급한 공간으로 처리하기 일쑤였다. 경제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교회 전체의 건축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일쑤였다. 구덕교회에서 부속 공간들은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격조를 갖춘 공간이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동시에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과 소통도 고려하고 있다.

구덕교회의 외관은 흑색 계열의 얇은 석재로 덮여 있다. 그것은 교회 건물 전체의 추상성을 강화시키면서 기하학적 입체로서 교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흑자는 진하고 어두운 재료가 교회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혼돈스런 도시에서 그것은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부여하면서 교회 건물에 차분함과 고결함의 성격을 부여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아마도 주변을 지나가면서 구덕교회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긴 역사만큼이나 앞으로도 구덕교회가 신도들에게 자부심의 근거가 되고, 주민들에게도 귀중한 동네의 장소이자 건물로 쓰임 받기를 기대해 본다. —

본당 내부공간



도시에서 본 구덕교회





## 2012 통영국제음악제 관람기

‘프린지 공연’을 중심으로

김형찬

대중음악평론가

부산 사람들에게는 덜할지 모르나 ‘통영’하면 ‘한국의 나폴리’라는 애칭으로 전국민의 로망이 되어버린 여행지이다. 여기에 음악이라는 매력을 추가하여 해마다 전국의 음악마니아들을 통영으로 끌어들이는 행사가 ‘통영국제음악제’이다. 200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이 음악제는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로 출발했다. 중심 행사인 클래식 음악공연은 주요 공연장에서 열리고, 주변행사인 프린지 공연은 주공연장을 제외한 야외와 여러 실내공연장에서 열리면서 전체의 음악 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음악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프린지 공연에 해마다 참가팀이 늘어 올해는 전국에서 162개 팀이 참가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경기 65팀, 경남에서 48팀, 부산에서 25팀, 그리고 경북과 충청이 각 9팀, 전라 지역에서 4팀으로 서울과 나머지 지역이 동등한 분포를 보이는 전국적인 프린지 공연으로 성장하고 있다. 음악 유형별로 보면 록 밴드 구성이 65개 팀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클래식 및 세미클래식이 52개 팀이며 그 외 아카펠라, 재즈, 크로스오버, 뮤지컬, 국악, 전자음악까지 음악의 거의 모든 장르를 망라하고 있다.

부산에서 25개 팀이 참가했으니 좀 한다하는 팀들은 모두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록밴드로는 달로 가는 고래, 문사출, 개자반, 오륙도횃집밴드, 동주대학교 밴드인 지우 등이 참가했다. 재즈밴드로는 부산팝앤드 재즈 빅밴드, 부산재즈색소폰 앙상블, 동주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라온제나 등이 참가했다. 클래식 팀들도 많았다. 부산색소폰콰이어,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부산대학교 합창단, 폴리포니 기타듀오 등이 참가했으니 너무 잘 차려진 밥상이 행복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청중 - 데마파크

쓰울파크라는 록밴드가 연주중이다. 뒤쪽의 나무옆에 본인의 캠코더를 설치했다.



강갑중 할아버지

부산으로 온 뒤에 새로운 작곡가를 소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5일을 통영에 체류하면서 공연이 없는 오전에는 관광을 하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여러 공연장을 찾아다녔다. 프린지 공연의 첫 날인 3월 16일은 윤이상기념관 내 메모리홀에서 공연을 보았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서울지역 밴드 학동역 8번 출구와 부산의 지우라는 팀의 대결이 불만했다. 학동역 8번출구는 이미 ‘2011 대한민국 청소년밴드 해변가요제’와 ‘2011 KIA 밴드 오브 드림즈’에서 대상을 받은 실력있는 팀으로 안면이 있었다. 학동역 8번 출구는 출중한 연주는 물론이고 4명의 남녀 보컬이 엮어내는 역동적인 무대매너는 그 자체로 밴드의 훌륭한 전략이었다. 그에 비해 부산의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지우는 소극적인 아마추어밴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진정성과 욕심은 앞서지만 세련미와 디테일에서 항상 뒤지는 부산문화의 성격을 보는 듯했다.

둘째 날인 17일은 아침밥을 먹으러 통영의 중심해안인 강구안으로 나갔다. 밥을 먹고 강구안 해변을 산책하다가 화장실 뒤에서 톱을 수리하는 강갑중 할아버지를 만났다. 본인이 평소에 작사한 것을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작곡을 받아 음반까지 냈다며 악보를 걸어놓았다. 인구대비 예술인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영의 문화적 자존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앙중학교 강당에서 록밴드들의 공연을 보고 근처의 열방교회로 이동하여 향이라는 여성 3인조 퓨전국악팀의 연주를 편안하고 은혜롭게 감상했다. 교회에서 공연을 보는 재미도 색달랐다. 부산의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들로 구성된 라온제나의 열정적인 재즈음악 연주는 교회 예배당을 부흥회의 분위기로 달아오르게 했다.





### 퐁금카페

바닥에는 돗자리를 깔았고 테이블마다 놓여 있는 방명록이 재미있다.



### 윤이상기념관

이념대립의 문제 때문에 전체의 이름을 테마파크라고 부른다.

셋째 날인 18일은 죽림초등학교 강당에서 멤버 중 한 사람이 통영 출신인 폴리포니 기타듀오의 공연을 보았다. 멤버의 아버님과 식구들이 와서 응원해주었다. 통영이라는 해안지역의 가난한 집의 아들이 클래식 음악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쉽게 이해하지도 지원해주지도 않았을 여건 속에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클래식 음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것이리라. 마치 나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넷째 날인 19일은 평일이라 공연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통영관광을 시작했다. 미륵도의 용화사에 들렀다가 내려오는 길에 봄비가 분위기 있게 내리고 있었다.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 눈을 돌리니 <퐁금>이라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서 꿈나라에 온 기분이었다. 퐁금과 기타가 놓여있고 조화와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차는 셀프고 주인이 없더라도 찾았을 알아서 내고 가란다. 악기와 일체가 된 연주자의 음악이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듯이 주인의 인격과 미적 감수성이 카페라는 공간으로 연출된 것도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통영 음악관광 마지막 일정인 24일 토요일은 윤이상기념관이 있는 테마파크로 향했다. 기념관 건물은 정말 겸손하고 편안했다. 민현식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했는데 지상보다는 지하로 건물이 더 들어가 있었고 건물 좌우에 있는 연못 중간의 다리를 통과해야 건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건물 자체가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다. 건물 밖에 만들어진 야외공연장은 경사로에 만들어져 자연스럽고도 집중감이 있었다. 부산에서 이름이 알려진 록밴드 개차반의 묵직한 록사운드가 온몸을 흔들거리게 했다.



### 록밴드 개차반

부산의 록밴드로 작년에 EP음반을 냈다.



### 이상한 나라의 달리스

상큼 발랄, 달콤 씹새로운 서울 지역의 팝재즈 밴드이다.

따사로운 봄바람과 화창한 햇살을 받으며 이처럼 아름다운 건물과 공연장에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신선함이 분출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천국은 바로 옆에 있다고 믿고 싶다. 도달할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천국이라야 힘든 세상살이에서 실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통영이라는 지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음악제를 10년이나 이끌어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통영시에서 시의 문화적 자존심을 걸고 지원해온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음악제를 죽 둘러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측이 외국의 음악인들을 섭외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영국제음악제를 전국의, 세계의 음악애호가들이 찾아오게 하는 음악제로 만들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였다. 글로벌하다는 말은 경제나 통신의 측면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한 지역에서도 전세계를 향해서 문화를 발신할 수 있는 수준의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을 자신있게 해낼 때 내가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부산 문화는 호주머니 속에 있다

연출가 이윤택과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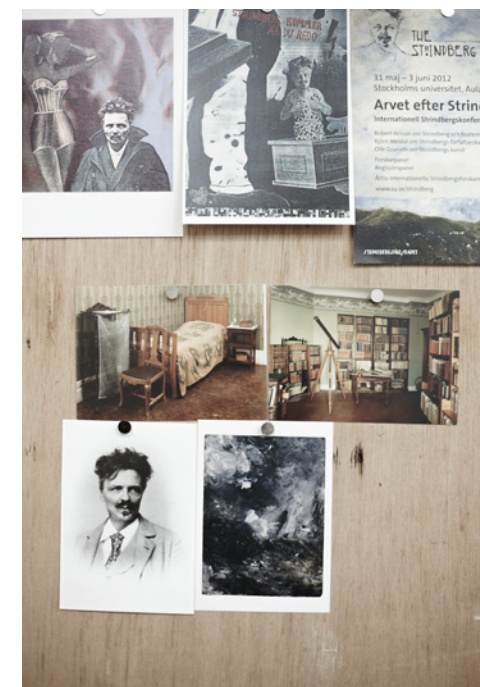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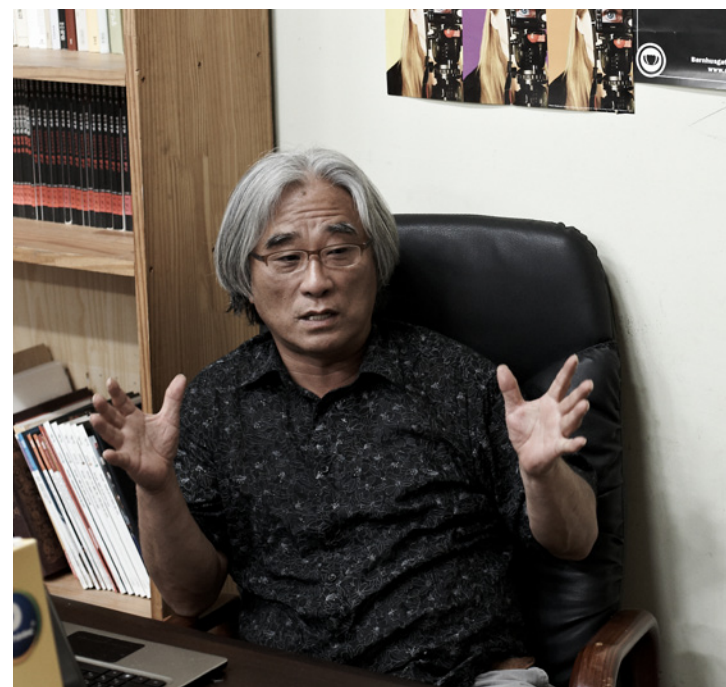
정인

소설가

「당신의 저녁」 「그 여자가 사는 곳」 두 권의 소설집이 있으며 '부산작가상'과 '노근리평화문학상'을 받았다. 현재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이윤택은 전방위적 인물이다. 1986년 잘 다니던 <부산일보>를 나와 연극을 시작한 후, 시·평론·시나리오·TV 드라마·뮤지컬·무용 등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넘나든다. 그래서인지 그를 떠올리면 모터사이클이 생각난다.

질주. 그 단어가 그에게는 잘 어울린다. 그는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지겹다고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을 배반하려 한다. 그것이 그의 에너지와 상상력의 근원이다.



그를 김해 도요마을 '도요창작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좀 피곤해 보였다. 스웨덴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인데, 도착하는 날 '궁리(窮理)' 뒤돌이까지 참석해 피로가 덜 풀렸다고 했다. 서울에선 '궁리'가 공연되고 있었는데 스웨덴엔 무슨 일로 간 것일까? 그 궁금증이 첫 질문이었다.

이윤택 올해가 근대연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트린드베리' 서거 100주년이네요. '스트린드베리'는 스웨덴의 극작가로 연극의 천재예요. '결혼'이란 소설로 왕실을 모독해서 왕과는 사이가 나빴지만 국민들에겐 굉장히 사랑받은 자연주의자였지요. 노벨상 같은 건 안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 '안티노벨상'을 만들어줄 정도였어요. '스트린드베리' 작품은 지금까지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공연된 적이 없어요. 그걸 이번 9월에 시작해 연말까지 게릴라극장, 국립극단, 대학로에서 연이어 공연해요. 처음으로 올리는 만큼 직접 스웨덴에 가 볼 필요가 있었지요.

정인 아시아 최초라니,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군요. 지난 3월 막을 올린 '궁리'도 여러 가지로 의미 깊은 작품인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윤택 '궁리'는 도요에 와서 처음 쓴 소설인데 세종시대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얘기예요. 이전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예요. 젊은이들로부터 엄청나게 반응이 온 게 바로 그 때문이죠. 바로 지금, 나의 얘기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학벌 좋고 집안 좋으면 부르조아죠? 장영실은 학벌도 없고, 천민이고, 지방민이고, 원나라 이주민이었어요. 그가 세종의 사랑을 받다가 내치진 후에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국가주의에 희생당한 거지요. '궁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한 개인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 난 그 얘기가 지금 한국 사회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봐요. 세종이란 강력하고 실용적인 마키아벨리즘은 개인의 무수한 희생 위에 우뚝 섰어요. 지금도 실용주의가 우선이고, 학벌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지방민은 박대받죠? 그러니까 '궁리'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면 소설책으로 나올 예정이고, 지금 영화 판권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정인 7월엔 부산에서도 공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윤택 아, 그게 불발되었어요.





뜻밖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대관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연인가. 내막을 듣고 보니 어이가 없다 못해 가슴이 아팠다. 그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면구스러워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이윤택** ‘궁리’는 부산을 스토리텔링한 작품이에요. 난 이걸 부산의 콘텐츠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스토리텔링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데, ‘궁리’는 부산 사람이, 부산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에요. 그게 전국 4개 도시를 돌면서 대박이 났는데 부산에선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협찬이 안 들어와서요. 전체 일억 삼천만 원의 경비 중 오천 만원만 들어오면 어떻게든 올리겠는데 여기저기 말을 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정인** ‘궁리’가 부산의 상설 레퍼토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싶었는데 공연조차 볼 수 없는 현실이군요.

**이윤택** 일단은 ‘궁리’를 뮤지컬로 만들어 콘텐츠화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래문화회관이든, 부산박물관이든 상설 레퍼토리로 만들자는 거지요. 그러면 진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궁리’가 잘 빠졌다는 소문이 났고 관객도 몰리니까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근래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란 게 생겨서 이야기들을 모으는 모양인데, 만들어진 것부터 잘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야기를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동시대에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정인**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 부산 문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절로 드러나는군요. 부산 사람이 만든 부산 사람 얘기를 부산에선 볼 수가 없다니, 그것도 협찬금 문제로 그리 되었다니가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이윤택** 문화란 것은 특수한 개인이 창조하는 거예요. 문제적 개인이 만드는 게 문화란 말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게 부산 문화예요. 그러면 특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평준화되었다고 할까, 제도화되었다고 할까 그런 걸 느껴요. 갑갑한 노릇이지요.

**정인** 그럼, 앞으로 우리 부산 문화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윤택** 난 부산을 위해서 뭘 해볼까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가만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 속에서 버텨내면서 높이 뛰기, 아귀다툼 속에서도 제각각 홀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오르기, 그게 우리 문화의 방향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린드베리’는 내가 한것보다 열 배나 더 열심히 하다가 63세에 미쳐 죽었어요. 스웨덴이란 나라가 잘 산다면서 왕실과 등졌다는 이유로 이번 행사에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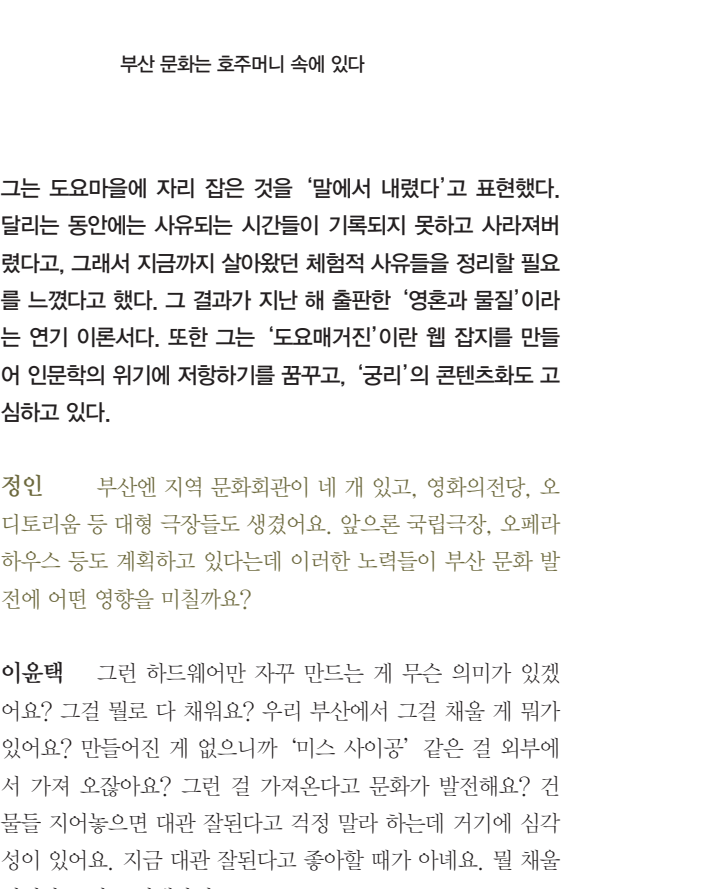




그가 한 십분의 일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대접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말을 한 번 시작하면 좀처럼 밀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다. 보통 달변이 아니다. 그는 올해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을 맞았다. 윤달에 태어나 올해야 제 생일을 맞은 그는 젊은 날,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은 찾아먹고 죽어야겠다’는 소원을 가졌다고 한다. 그만큼 ‘편하게 못 살았다’고, ‘그렇게 거칠게 살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신기하다’고도 했다. 그만큼 그의 삶은 역동적이고 실험적이었다. 그가 지금 도요마을에서 꾸는 꿈은 무엇일까?

**이윤택** 난 도요마을에 문화인들이 모여 사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으로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집을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겨우 최영철 씨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다들 좀 들어와서 문화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사는 것, 그게 앞으로의 바람이에요.



정인 부산엔 지역 문화회관이 네 개 있고, 영화의전당, 오디토리움 등 대형 극장들도 생겼어요. 앞으로 국립극장, 오페라 하우스 등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부산 문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윤택** 그런 하드웨어만 자꾸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뭘로 다 채워요? 우리 부산에서 그걸 채울 게 뭐가 있어요?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미스 사이공’ 같은 걸 외부에서 가져 오잖아요? 그런 걸 가져온다고 문화가 발전해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대관 잘된다고 걱정 말라 하는데 거기에 심각성이 있어요. 지금 대관 잘된다고 좋아할 때가 아녜요. 뭘 채울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지요.

그와의 인터뷰는 시종 진지하고 유쾌했다. 앞으로도 그는 도요에서 많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이 서린 ‘도요창작스튜디오’를 걸어나오면서 부산에선 볼 수 없는 ‘궁리’와 그가 꾸는 꿈들에 대해 생각했다. 새로 다듬어진 강변의 풍경이 아프게 눈을 찔렀다. —





“그래피티를 하게 된 것은 힙합음악을 좋아하면서 알게 된 힙합문화 때문입니다. 힙합음악에 빠져들고 난 후, 문화 자체에 눈을 돌려보니, 힙합에서 무용은 비보잉, 노래는 랩, 연주는 디제이, 미술은 그래피티더라고요. 그리고 무대는 거리.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피티겠다’ 생각했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록과 힙합 음악을 즐겨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의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문화에 젖어들었던 구헌주는 비주류문화의 수용자에서 생산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꿔나갔다. 오늘날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구헌주는 거리의 문화에서 나온 힙합 정신을 몸으로 익히며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래피티라는 기술을 익히기 전에 그 근처의 문화적 토양에 해당하는 힙합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성장한 것이다. 구헌주는 한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결여하고 있는 힙합정신의 본질에 충만한 보기 드문 힙합정신의 소유자이자 그 정신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예술가이다.

30대 초반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구헌주는 언젠가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대안예술의 아이콘이 되었다. 지난 2005년, 그러니까 미술대학 회화전공 4학년 학생일 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그는 부산대 앞 지하철역 아래의 천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그래피티 씬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명 ‘똥다리’라고 불리는 이곳은 구헌주를 비롯한 많은 젊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활동해온 곳이다. 한때는 국제적인 그래피티의 메카로 알려져 국내외의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이 이곳을 방문해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곳 벽을 사랑했다. KAY2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는 무수히 많은 그림을 남겼다. 1980년대의 시위 사진 위에 모니터 속 윈도우 프로그램의 ‘삭제’ 아이콘을 그려 넣기도 한 그는 초기부터 사회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리며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는 대학가의 주류공간이 미술제도 영역으로부터 한 발 비껴난 언더그라운드 문화공간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았다. 그는 재미난 복수라는 문화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메이저가 아닌 마

이너 취향을 지향하며 차근히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왔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꾸리고 있는 공간인 아지트의 운영을 주도해왔다. 올해 봄까지 4년여 동안은 아지트의 총괄 운영과 기획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본연의 일인 작업의 길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한 이 공간은 말 그대로 탈장르복합문화의 실험장이었다.

구헌주는 아지트에서 잔뼈가 굵었다. 아지트는 그에게 액티비스트의 자질을 키우고 실천의 근거를 제공한 배후지이다. 아지트는 류성효와 구헌주, 김건우 등이 꾸려온 대안문화공간이다. 류성효는 대안문화 기획자이자 네트워크이다.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의 접점을 만드는 김건우 또한 아지트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손지현, 이정민, 이광혁 등의 문화기획자, 댄서, 뮤지션들이 아지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지트는 미술과 음악, 퍼포먼스 등이 공존하는 탈장르복합예술의 아방가르드 그 자체이다. 장르와 장르의 만남, 예술과 사회의 만남, 세대와 도시와 국가 등의 경계를 넘어 그 모든 것을 뒤섞어 버리는 말 그대로 첨단예술의 아지트이다.



아지트식구, 아시아게스트들과 함께한 구헌주 작가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아트인대구 참여작가 협업프로젝트





아트인대구 참여작가 협업프로젝트

한 사람을 보려면 그 주변을 봐야한다는 말이 있다. 구헌주가 좋아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의 취향과 지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존경하는 인물 1번으로 꿈을 정도로 류성호를 좋아한다고 한다. 류성호는 구헌주에게 있어서는 불굴의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진정한 아티스트이다. 재미난 복수의 주요 멤버인 류성호는 써브컬처씬의 네트워크작업과 축제컨텐츠에 대한 열망이 많은 사람이다. 좋아하는 뮤지션은 리얼 아티스트인 김일두. 그래피티 아티스티스트 지알(Jial)은 십여 년 전에 불모지였던 부산의 그래피티 문화를 일군 선구적 역할을 했다. 뱅크시와 블루 등 해외의 스트리트 아티스트도 그를 이끈 예술가들이다.

돌이켜 보건대, 구헌주는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여느 신진 작가와는 사뭇 다르다. 나는 미술평론가로서, 혹은 독립큐레이터나 미술관 큐레이터로서 수년간 그를 만나왔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7년에 류성호가 경성대 미술관에서 기획한 그래피티 아카이브 전시에서였다. 그래피티의 정신에 대해 토론하며 나는 그가 미술대학을 졸업한 여느 신진작가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그해 가을에 독립큐레이터 일을 맡아 그를 초대한 것은 〈아트인대구 2007 : 분지의 비람〉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대구의 원도심에 있는 삼덕택선의 벽에 거대한 그래피티 작업을 했는데, ‘눈감고, 귀막고, 입막고 있는 대구사람들’의 정치적 보수성을 일갈한 그 작업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듬해에는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서 〈아트인부산 2008 :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구헌주를 초청했다. 그는 전시장 안에 사각부스를 만들고 그 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그는 쇠고기 이슈를 다루며 MB를 그려 넣더니 급기야 불경스러운 도상을 그려넣기까지 했다. 아무래도 공무원 큐레이터인지라 ‘살살 하라’며 약간의 자제를 당부했고, 그도 웃으면

서 약간 살살 하기도 했지만, 2009년 이후의 살벌한 정국을 생각하면 MB정권 초기의 약간은 널널했던 분위기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후에도 대안공간반디와 상상마당 등에서의 기획전에 그를 초대하고 작가추천을 하기도 하면서 지켜보아온 그는 한결같았다.

“아트신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라는 고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기회들이 아트신과 닿아 있다면 거스를 필요도 없지만, 굳이 그쪽만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홀로서기를 한 지금 저의 생각과 저의 결과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할 뿐입니다. 우선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미술계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젊은 작가도 참 드물 것 같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도권 미술계에 찌들지 않고 곳곳하게 한길을 걷고 있다. 나는 그의 이러한 두독한 뱃심이 저항문화에 관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의 현대사에 면면히 흐르는 저항문화의 흐름을 나름의 시각으로 가능하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식의 정치적 저항문화를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세대가 지난 세대와 어떤 점에서 맞닿아있고, 어떤 점에서 단절의 지점을 형성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는 1980년대 방식의 정치적 저항운동과 2000년대 방식의 문화적 저항운동의 차이를 가르는 변곡점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대 간의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4,50대 선배 세대와의 만남에도 마음을 여는 네트워크이다. 제도권 미술계에서 일하는 나는 비제도권 문화계에서 일하는 그



아트인부산 참여작품

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대화할 수 있는 많지 않은 후배세대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 그를 꼽곤 한다. 그래봤자 12년 차이 나는 것이니 마음만 열면 세대 공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물론 그는 그렇게 생각 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도 나는 안다). 거대담론과 미시담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구헌주의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봐서 그는 자신의 좌표를 비교적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정치적 저항이 민주화나 현실정치 개혁 등의 거대 담론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00년대 저항문화는 다양성이 결여된 기존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각자의 행복 추구, 자기표현 등이 중심이 된 개인의 발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작은 사회의 특수성에만 매료되어 큰 삶, 큰 사회의 이야기와 단절된 채로 사는 것은 원치 않지만, 저마다 다른 다양한 삶의 모습,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함께 존중받고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헌주는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혀왔다. 광주와 대구, 서울의 도심에는 그의 그래피티가 남아있다. 그의 해외활동은 주로 일본과 연관이 있다. 일본의 그래피티 작가들이나 문화 활동가들과의 협업이 주를 이룬다. 후쿠오카시청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아지트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 만난 해외 작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도 큰 재산이다. 조만간 스트리트아트의 메카인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싶다. 이왕이면 그의 생각대로 ‘예술을 점령하라’는 모토로 국제적인 액티비스트들의 집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를린에서 구헌주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한 구헌주, 떠나라!” ─



# 또따또가 탐방

김종균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제공 또따또가 사무국

40계단 조은필 설치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를 찾았다. 작가 300여 명이 입주해 창작활동은 물론 지역 주민과 문화로 소통을 꿈꾸는 곳이다. 지난 2010년 부산 중구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 빈 사무실을 임대해 조성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가 제안했고 부산시가 받아들였다. 활기를 잃어가는 부산 원도심에 문화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건물주들도 동의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따또가를 조성한 지 3년째다. 그동안 이곳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비오 거리콘서트

## 일상에서 문화를 만나는 공간

지난 6월 11일 낮 12시 부산 중구 중앙동 40계단 앞. 큰 나무 그늘. 연주인 세 명이 악기 세팅에 분주하다. 기타와 대금을 조율하고 간단한 리허설도 한다. 한낮 도심에서 음악이 들리자 직장인과 시민이 몰려든다. 순식간에 30여 명이 모인다.

낮 12시 20분.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예술문화축전 '일상의 축제-매일매일 기다려' 공연이 펼쳐지는 현장이다. 국악 밴드 '아비오'가 무대에 올랐다. 김성겸(30) 씨가 피리와 기타, 김은경(30) 씨가 대금, 윤승환(30) 씨가 장구를 맡았다. 김은경 씨가 말했다. "첫 곡은 '표정만방지곡상령산'이란 음악이에요." 오! 곡목이 심상치 않다. 김 씨가 말을 잇는다. "전통음악인데 모르고 들으면 어려워요. 원래 불교기악곡인데 변형을 거쳐 궁중음악으로 사용됐어요. 시작할게요." 그리고 장중한 음악이 도심을 파고든다.

무대 주변은 일상 그 자체였다. 자동차들은 무심한 듯 주차돼 있었다. 관객들의 표정도 다양했다. 벤치에 앉아 음악에 집중하는가 하면,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연주를 듣다가 다시 길을 가기도 했다.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무대를 지켜보기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연주 장면을 찍기도 했다.

첫 곡이 끝났다. 군데군데서 박수가 난다. 일부 관객은 자리를 뜬다. 아무래도 전통음악이라 어려웠나 보다. 김은경 씨가 말했다. "여기서 궁중음악을 한 건 처음이에요. 들려 드린 곡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서울 종묘에서 열리는 제례악 행사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다음은 선비들이 주로 즐겼던 '대풍류'를 들려 드릴게요." 윤승환 씨가 애교 섞인 말을 잇는다. "전통 음악은 느립니다. 요즘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한 음악입니다."

니다. 정신을 맑게 해주죠. 가지지 마세요." 관객 일부가 웃는다. 피리와 장구가 멋들어지게 어울린다.

빠져나갔던 관객이 다시 모여들었다. 40여 명은 넘을 듯했다. 이번 곡은 '김동진류 대금산조'다. 김은경 씨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깊고 청아한 대금 가락이 가슴을 울린다. 열정적인 독주가 끝나자 '와~'하는 큰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다. 김 씨는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한 뒤 이렇게 말했다. "끝으로 창작곡 '야상풍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서양에 '재즈'가 있다면 우리에겐 '시나위'가 있습니다. 즉흥곡이죠. 이런 형식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경쾌하고 리듬감이 풍부한 음악이 흐른다. 다시 큰 박수가 터졌다. 또따또가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낮에 이런 공연을 펼쳐왔다.

40계단 중앙에는 푸른 천이 놓였다. '하늘과 구름' 같기도 하고 '바다와 파도' 같기도 했다. 조은필 작가의 작품이다. 회색 도시에 청량감이 물씬 느껴졌다. 40계단 위로 올라서자 왼쪽으로 인쇄 골목이 보인다. '동광세탁'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건물에 벽화 작업이 한창이다. 박경효, 정만영, 정도윤 작가가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렸다. 무심한 시멘트벽이 문화적 활기를 띤다. 김희진 센터장은 "지난해 인쇄 골목 가게 셔터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했고 올해는 벽에 그림을 그리는 중"이라고 했다.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 외벽도 흥미로웠다. 벽 속에 액자를 만들어 미술작품을 전시했다. '또따또가 49X38 갤러리'란다. 정도윤 작가의 '공정'이라는 작품이 전시돼 있다. 작품은 이랬다. 컵 위에 양증맞은 인형 돌이 서 있다. 길을 걷던 시민이 눈만 돌리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작품은 한 달마다 바뀐다.





1 40계단 조은필 설치  
2 49X39 모이슨 갤러리  
3 은여우 입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또따또가의 장점은 ‘지역 주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이다.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주민의 문화 참여가 잦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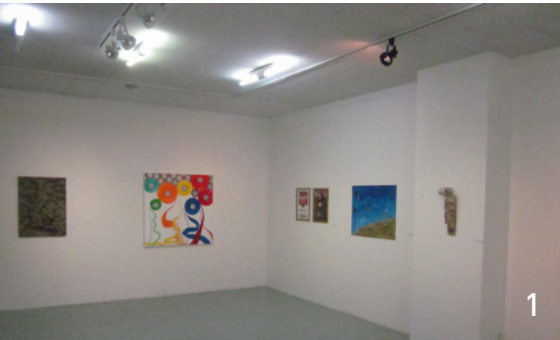
부산 중구 중앙동 40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수공예품 가게 ‘은여우’가 있다. 또따또가 입주작가가 운영한다. 재미있는 건 가게 입구 외벽이다. 다양한 동판 작품 50여 점이 빼곡히 붙어있다. 미술작가 15명과 주민 2명이 함께 제작했다. 지역 주민이 동판작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작가들이 제작방법을 알려주고 협업해 만든다. 지난 3월부터 해온 일이다.

최근 문을 연 전시공간 스페이스 닛도 흥미로운 전시를 열었다. 또따또가 입주작가들이 지역 주민에게 인채 과정을 배우고, 그것을 주제로 만든 작품을 전시한 것. 인채옹지나 기계를 형상화한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또따또가 입주작가들이 지역 주민의 일터를 존중하고 공감한다는 뜻이다. 지역민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전시공간 한쪽에는 흥미로운 작품도 전시됐다. 인근 인쇄소 대표의 어린 아들이 그린 각종 캐릭터도 함께 전시공간을 장식했다. 주인공은 강경민(7)이란 아이인데, 또따또가가 문을 열

때부터 작가 창작공간을 찾으며 친분을 맺어왔다. 아이 부모가 일하는 인쇄소에 작가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경민이 네 인쇄소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도 만들 예정이다.

주민 참여가 많은 행사는 벼룩시장이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40계단 앞에는 장터가 열린다.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와 퍼포먼스를 하는 지구인이라는 단체가 판을 벌인다. 각종 생활용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이 30여 명에 달한다. 매 주 일요일마다 광복로에서는 아트마켓이 열린다. 또따또가 입주작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비롯한 아트물품을 판매한다. 시민이 참여해 열쇠고리나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형 행사도 펼친다.

국악밴드 ‘아비오’는 주민 10여 명을 대상으로 풍물놀이를 가르칠 예정이다. 물론 무료다. 무조건 강습을 마련했으니 배우고 싶은 주민은 오라는 식이 아니다. 또따또가 측이 먼저 지역 주민에게 배우고 싶은 악기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강습할 악기를 선정했다. 지역 주민을 배려한 조치다.



1 인쇄플라주 작품 전시  
2 화분 텃밭  
3 지구인 시장  
4 벽화 사진

또따또가 창작공간이 있는 골목 곳곳에는 화분도 볼 수 있다. 작가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가꾼 화분이다. 지역을 함께 꾸민다는 뜻이 담겼다. 식물을 매개로 작가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진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말로 또따또가 창작공간에 대한 계약이 끝난다. 건물주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희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은 “부산시도 또따또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액이다. 부산시는 1, 2차 연도에 4억 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3억 원만 지원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려면 사무실 임대료를 다소 올려줘야 할 전망이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따또가가 입주할 때, 건물주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았다. 또따또가 측은 “건물주들이 물가상승률 정도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따또가 측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을 사들여 자체적인 창작공간을 확보해야 주민과 결합한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안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입주작가들의 창작공간 사용 연장 문제도 있다. 또따또가 입주작가는 3년간 창작공간을 활용한 뒤 자립해야 한다. 올해가 3년

째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독립해 나갈 여력이 있는 작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다. 김희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은 “상당수 작가가 현 창작공간에 남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 주민과 쌓아온 인간적 문화적 관계가 더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입주작가들은 부산 중구 중앙동 일대에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이는 또따또가가 현재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김 센터장은 “부산시가 지원하는 예산 중 실제 사업비는 5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예산 대부분은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다. 입주작가들의 재능 기부가 없었다면 다양한 예술문화사업을 펼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런 작가들을 마냥 내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김 센터장은 “현 입주작가를 남긴 상태에서 창작공간을 확대해 추가로 입주작가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



#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정여행

## 여행

많은 이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것 또한 여행이다. 돈이 없어서?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무작정 떠났던 여행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떠나는 횟수는 줄어들고, 떠나더라도 여행사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부족한 것 같다. 여행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여행은 새로움의 시작이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흥분을 가져온다. 흥분은 곧 설렘이며 설렘은 머리로 생각하기에 앞서 가슴으로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설렘은 항상 멋진 만남과 인연으로 다가온다.

## 구태희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방랑벽(?)과 역마살(?)로 인해 항상 돌아다닐 고민을 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는 민주공원 시민사업팀에서 회원 사업을 담당 중이다.  
나를 살게하는 것들 하늘, 바람, 별, 희망, 평화, 통일, 청소년 그리고 당신...

사진제공 트래블러스맵

하지만 누구에게나 여행이 자유롭지는 않다. 만약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마을이라면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단 14명뿐이다. 그 14명 중 8명은 유럽인, 2.8명은 아시아와 호주사람이고, 나머지 2.2명은 북미, 나머지 1명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중동을 모두 합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다. 결국 지구에서 살아가는 약 86명에게 여행이란 평생을 두고 갈망하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모두가 행복하게 여행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일까?



## 공정?

길을 걷다 목이 말라 카페에 들어가면 공정커피가 보이고,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어가면 공정초콜릿이 보인다. 그리고 간혹 보이는 공정여행 상품들. 요즘은 공정이 대세인가 보다. 윤리적 소비운동의 일환인 ‘착한소비’에 관심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착한 소비의 대상이 되는 공정무역(Fair Trade) 상품들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상품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값을 지급하고, 어린이들의 노동을 제한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여행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처럼 여행자와 여행 대상국의 국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이 공정여행이다.

## 공정여행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

평화활동가 임영신의 '평화는 나의 여행'과 임영신 · 이해영 공저 '희망을 여행하라'를 살펴보면 공정여행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여행객이 쓰는 돈 중 70~85%는 외국인 소유의 호텔이나 관광 관련 회사들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2%뿐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에 의하면 세계 관광산업은 매년 10%씩 성

장하지만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은 G7 국가에 속한 다국적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등산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는 포터들이 국제적 합의로 정해진 20~30kg의 짐을 들고 올라가야 하지만 더 싸게 고용하기 원하는 여행자로 인해 하루 3~4달러의 일당을 받으며 40~50Kg의 짐을 지고 안전장비도 없이 히말라야 설산을 오르고 있다. 또한 여행자 한 사람의 더운 물 샤워를 위해 세 그루의 나무가 사라져가고 있다.

83%의 인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몰디브에서는 인구의 43%가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아동의 30%는 영양실조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의 관광수지는 G8에 속한 다국적 호텔체인과 리조트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부산만들은 보츠와나 정부의 관광개발로 고향과 집이 있는 칼라하리 사막에서 쫓겨나고 리조트의 난개발로 물이 사라져 물을 찾아 400Km를 이동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발리나 몰디브를 찾아가고 많은 돈을 쓰고 오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여행이 누군가에게 폭력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공정여행의 역사

공정여행과 책임여행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책임여행은 영국을 중심으로 1988년 관광산업의 착취와 개발에 맞서 싸우는 시민단체 ‘투어리즘 컨선’이 세워진 뒤, 빈부격차와 환경파괴의 책임이 여행자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책임여행에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태여행(에코투어), 여행과 교육을 결합시킨 교육여행(에듀투어), 워크캠프와 같은 자원봉사여행(볼런투어리즘)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진짜 마음편한 여행이 될 수 있다. 여행 지역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 자연을 지켜주는 여행, '공정여행'은 소비자로 군림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여행이다.

공정여행자가 되는 방법

공정여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과 공정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시선’이다. 단순한 소비가 아닌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래는 이매진피스에서 소개하는 공정여행의 방법이다.



- 01 지구를 돌보는 여행**  
비행기 이용 줄이기, 1회용품 쓰지 않기, 물을 낭비하지 않기
- 02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여행**  
직원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을 지키는 숙소 및 여행사를 선택하기
- 03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행**  
아동 성매매, 섹스관광, 성매매 골프관광 등을 거부하기
- 04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가이드, 교통시설 이용하기
- 05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과도한 쇼핑하지 않기,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지나치게 깎지 않기
- 06 친구가 되는 여행**  
현지 인사말 배우고 노래와 춤 배우기, 작은 선물 준비하기
- 07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생활방식,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
- 08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행**  
사진을 찍을 땐 허락을 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여행
- 09 기부하는 여행**  
적선이 아니라 나눔을 준비하는 여행,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 10 행동하는 여행**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 여행 중 알게 된 소수자, 차별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블로그 등을 통해 알리기

이미 기존의 여행방식과 우리 삶 속에 적응해버린 습관으로 인해 위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공정여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며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여행 그리고 기억하기!

공정여행은 단순한 여행상품이 아니다. 여행에 대한 태도이자 인식이다. 그리고 여행지역 주민의 문화, 경제, 환경을 존중하는 일종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나만 즐기는 기존의 여행을 탈피하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여행을 고민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히 공정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공정여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행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떠나는 패



키지여행 중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시장 경제를 혼란케 하는 등 사회적 편견과 오만이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 물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정하게 떠나는 여행도 많이 있다. 다만 과도한 상품경쟁으로 여행과 상관없는 쇼핑물 방문이나, 여성을 상품화한 곳의 방문, 지나친 팁의 요구 등을 잘 살펴보고 떠나면 된다. 공정여행을 위한 지침을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미 대학생들이 많이 떠나는 배낭여행은 공정여행의 일부이고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공정여행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 시킬 것이다. 당연한 가치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지금, 여행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학여행부터 공정여행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자고 제안한다. ─

공정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 도서**  
희망을 여행하라 (임영신, 이해영)  
평화는 나의 여행 (임영신)  
조금 다른 지구마을여행 (이동원)
- 사이트**  
공정여행사 트래블러스맵 [www.travelersmap.co.kr](http://www.travelersmap.co.kr)  
공정여행사 착한여행 [www.goodtravel.kr](http://www.goodtravel.kr)  
공정여행사 공감만세 [www.fairtravelkorea.com](http://www.fairtravelkorea.com)  
공정여행사 제주생태관광 [www.storyjeju.com](http://www.storyjeju.com)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그물망, 이매진피스 [www.imaginepeace.or.kr](http://www.imaginepeace.or.kr)  
평화를 향한 세계일주, 피스보트 [www.peaceboat.org](http://www.peaceboat.org)  
국경과 경계를 넘는 여행자들, 글로벌익스체인지 [www.globalexchange.org](http://www.globalexchange.org)  
부산지역 공정여행 모임 '삶' [www.facebook.com/groups/171122612966246](http://www.facebook.com/groups/171122612966246)





## 드라마틱한 홍콩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

홍콩은 낯설지만 익숙했다. 짧은 경험으로 홍콩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마치 고속철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생각만큼 희미하지 않은 것처럼, 문화현장의 한 가운데로 진입한 열혈 문화 활동가들의 가이드 덕분에 홍콩의 아주 중요한 단면을 뚜렷하게 목격하고 온 느낌이다. 일주일동안의 이야기다.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들의 이야기만큼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이나 홍콩 자체의 이해를 돕는 기능은 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당신이 문화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볼만한 이야기일 것이다. 현재의 홍콩을 뜨겁게 고민하고, 미래의 홍콩을 준비하는 어느 청년들의 이야기다.

### 홍콩 입문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부산에서 만난 홍콩 친구가 있다. 오픈 스페이스 배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리춘펑(Lee Chun Fung)이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다. 스스로를 아티스트 겸 기획자라고 소개하던 리춘펑은 부산을 떠나기 전 필자가 운영자로 있던 독립문화공간 아지트에 며칠간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영화와 관광프로그램에서만 보던 홍콩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낯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89년의 천안문 사건과 같이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고 살아있는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2005년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반대를 위해 홍콩으로 건너간 한국 농민들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접했던 홍콩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탄원서 제출, 대규모 집회, 릴레이 퍼포먼스, 음악 공연, 미디어 활동,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냈던 광저우-홍콩 고속철도 반대운동(反高鐵運動, Anti-High Speed Rail Movement)

#### 류성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 독립문화공간 아지트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2011년 부산최초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2년 부산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 중이다.

이야기, 특히 중국 정부가 주민들의 강제 이주, 철로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소음 발생, 고건물 철거 등의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던 이 운동에서는 절박함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되던 한국 농민들의 퍼포먼스가 그들의 상황 안에서 재현되기도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과 사건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더해졌다.

이쯤 되면 호기심에 불이 붙는다. 더구나 그 사건의 중심에 문화 활동가들이 있고, 더더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청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생각한 일은 실천해야 하는 법. 이듬해 문화기획자, 뮤지션, 다큐감독, 스트리트 아티스트 등 홍콩의 보석 같은 청년 7명이 부산을 찾았다. 독립문화공간 아지트의 초대에 의해서였다. 모노로 음악을 듣다가 서라운드 사운드를 접한 것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전해지는 홍콩의 이야기는 통장 잔고가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비행기를 타야했던 명쾌한 이유가 되었다.

### 우퍼텐(Shanghai Street Art Space 'Woofier-Ten')

자정이 넘어 홍콩에 도착했다. 4월의 홍콩이 머금고 있던 습기를 뚫고 도착한 문화공간 ‘우퍼텐’에는 늦게까지 일하던 리춘펑이 있었고 오자마자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도로변 식당으로 나를 안내했다. “홍콩에서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 당연히 뜨겁고 유쾌한 청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몇 번이고 건배를 했다.

우퍼텐 건물 4층에 있던 게스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그 곳의 하루를 관찰했다. 부산에서 만나 익숙했던 웡지(Vange Fung)와 도쿄에서 만났던 롤랜(Roland Ip)과 인사를 나누고 시시콜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이 들어오고, 홍콩이 아닌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온듯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학생으로 보이는 백인들과 홍콩 청년들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오고,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가고, 사회연구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주성치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개성 강한 조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들어온다. 우퍼텐 유리창에 붙여 놓은 소식을 유심히 읽어 보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고, 식사를 하기 위해 우퍼텐 운영자들과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니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풍경에 묻혀 나도 마치 이곳의 주민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부산에서 만났던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그들의 일행이 필자와 김진우(독립문화공간 아지트 대표)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양손 가득 맥주와 음식을 들고서 말이다. 이야기와 이야기, 양생(‘건배’의 홍콩말)이 양생을 부르며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간다.

문화공간 우퍼텐의 이야기다. 혹은 미술이나 음악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사실 재밌고 진지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일기 같은 이야기가 ‘우퍼텐’을 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

람들이 제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드는 문화 공간, 여러 장르의 친구들이 모여들어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공간, 그것이 우퍼텐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예술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그 중 하나만 꺼내보겠다. 홍콩은 어디에나 눈이 돌아갈 만큼 다양한 상점들이 많은데 우퍼텐이 위치한 곳은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번잡하고 복잡한 지역이다. 정말 다양한 물건을 파는 곳들이 즐비하다. 조형작업을 하는 작가들과 우퍼텐의 기획자는 이러한 환경의 특징을 살리면서 유쾌하고 인상적인 미술 기반의 프로젝트로 ‘시상식’을 구상했다. 쉽게 설명하면 뽀빠이를 전문으로 하는 상점에는 정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질 좋은 뽀빠이를 팔아주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뽀빠이 술잔을 상징화한 트로피를 작가가 제작해 수여하고, 열쇠 집에는 마치 다른 자물쇠에 넣어도 열릴 것 같은 강력한 신뢰감의 열쇠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며 열쇠 모양의 트로피를 제작해 수여했다는 것이다. 반 정도는 재미삼아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일 년이 지나도 상점 입구에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걸어 놓은 곳이 꽤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리춘펑이 웃는다. 어찌되었든 그런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평생 갤러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술을 친숙하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미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유쾌하게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른 프로젝트도 궁금한가? 그렇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야기와 사진으로 그 곳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고차원적인 것인지 대수롭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특별한 것 없는 그 문화공간의 일상화 된 풍경이 나는 무척 반가웠는데, 그것은 직접 그곳에 방문해서 중국어 악센트가 진하게 묻어 있는 영어로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 봐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다. 예술의 중압감에서 무장해제 되었어도 진정성을 동반하고 있는 그 곳만의 느낌을 오로지 텍스트만으로 치장할 수 없다는 필자의 판단을 여러분도 직접 판단해보기 바란다.

문화공간 우퍼텐 'Woofier-Ten'에서 진행한 'Street Drinking Battle' 이벤트\_2012년 4월





불법 라이브 하우스 'HIDDEN AGENDA'

‘우퍼텐’이 일상화 된 풍경 속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라면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Hidden Agenda)’는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떠나 공간을 찾아 가는 과정부터 범상치 않다. 공장이 밀집된 지역, 저녁이 되니 오가는 사람들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눈이 어지러울 만큼 복잡박작한 다른 지역과 달라 도 너무 다르다. 어쨌든 으스스한 길을 지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간 화물창고 2층에 불법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가 있었다.

살인적인 홍콩 임대료 때문에 벌써 이사를 몇 번 했다는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는 홍콩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홍콩 뮤지션들의 공연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뮤지션들을 초청해 매주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라이브 공연은 물론 독립다큐 및 독립영화 행사인 ‘Underground Film Festival’ 등의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공간 곳곳에 홍콩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 했더니 인근 공장가에 미술작가들의 작업실도 꽤 있단다. 서울의 문래동이 연상되어서 질문을 더했더니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가 위치한 공장지대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미술작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뮤지션들의 연습실들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했다.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가 불법인 것도 창고로 용도가 정해진 건물에 허가 없이 라이브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공간이 엄청난 임대료를 감당하며 홍콩 내에 자리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We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 냉장고 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재미있는 글이 붙어 있다.

불법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Hidden Agenda)’



"No Alcohol, Sorry, ask our shitty gov. Please bring your own beers." 술은 팔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할 우리 정부에게 물어보세요. 어쨌든 술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당신이 직접 밖에서 사오면 됩니다.

상에 공개했다. 그 뒤에 찾아 온 손님은 경찰들. 어떻게든 무마하며 버티고 있지만 공간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익행위인 술 판매, 더구나 음주 나이제한 등의 법규 준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때 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붙여놨단다.

공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술 판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객이 바뀔 수는 없는 법,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경찰 권고를 받아 들여 술 판매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수익형 클럽이 아니라 대안적 문화 공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팔리는 음악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지하고 다양한 음악도 필요하기에, 공간이 필요하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곳을 사용할 수 없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판하고 뜨거워질 수 있기 위해서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는 콘크리트라도 뚫고 뿌리를 내리는 잡초가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히든아젠다’가 생존하는 것, 그리고 ‘히든아젠다’만이 품을 수 있는 문화가 살아남는 것이 극강 자본논리에 휘청거리는 홍콩의 문화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부분이라고 그들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영어를 보고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준다. 이유인즉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는 홍콩 정부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간이다. 하지만 그 공간의 존재감은 그들의 진정성을 업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호기심을 느낀 언론은 그들을 세

숨겨진 드라마

문화공간 우퍼텐은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과 인건비 등을 97% 이상 홍콩문화재단(HK Arts Development Council)에서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는 그 곳을 운영하는 젊은 친구들의 희생과 그곳을 아끼는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어렵지만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다. 무엇이 다른가? 우퍼텐을 이야기할 때 빼 놓은 말이 있는데 우퍼텐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사실 홍콩정부와 중국 본토의 비상식적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라이브하우스 ‘히든아젠다’는 운영자금이 부족해 공장 창고로 자리를 옮기고 불법이 되었지만 비판적인 방식 외에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분히 안고 있다.

두 공간은 다르지만 닮았다. 홍콩 센트럴에서 진행되고 있던 ‘Occupy Hong Kong’에서 포럼 발표를 끝내고난 뒤 현장에서 바로 진행된 뒤풀이는 이번에 설명한 두 공간 외에도 중국의 대안문화공간에서 활동하던 기획자, 필자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준 농장 겸 채식주의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독립영화감독,

‘우퍼텐’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의 뜨거운 청춘들, 홍콩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



큐레이터, 언론인, 대학생, 교수, 다국적 비즈니스맨들과 시민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부족한 일정이 너무 아쉬울 만큼 방문하고 싶은 많은 공간과 활동을 소개해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정 기준에 의해 문화공간이나 활동의 가치들이 단편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상황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소개하지 않은 곳에 홍콩의 숨겨진 드라마가 더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홍콩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홍콩을 보면서 부산을 생각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글을 썼지만 사실 어떠한 곳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어떠한 매력을 찾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정답이 있는 예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정성 있고 유쾌하고 에너지 가득한 곳은 이해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도록 뭔가를 보상에 준다. 까딱 잘못하면 휘황찬란하고 어질어질한 홍콩에 현혹될 수 있지만 화려하지 않은 사람과 공간 사이에서 빛나는 역할을 즐겁게 임하고 있는 열혈 청춘들을 만나보자. 그들에게 관심이 생기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가 부산에서 잊고 있던, 혹은 찾지 않았던 공간과 사람과 문화가 문득 떠오를지도 모른다. ─

WOOFER-TEN

주소 404 Shanghai Street, Kowloon, Hong Kong  
전화번호 +852 3485 6499  
이메일 leeeefung@gmail.com  
웹사이트 www.wooferten.org

Live House HIDDEN AGENDA

주소 2A, Wing Fu Industrial Bldg, 15-17 Tai Yip Street, Kwun Tong, Hong Kong  
전화번호 +852 9170 6073  
이메일 hiddenagendahk@gmail.com  
웹사이트 http://hiddenagenda.hk

※부산의 청춘들과 유쾌하고 진지한 교류를 원하는 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보자!





부산문화재단 NOW



2012 조선통신사 축제 개최

지난 5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3일간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원에서 '2012 조선통신사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과 해신제, 조선통신사 광장움직이는 역사관 등, 시민의 참가규모를 확대한 1,200여명의 대규모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많은 국내외 참가객들이 참여했습니다. 조선통신사 축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문화교류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일시 2012년 5월 4일 ~ 5월 6일  
행사장소 부산 용두산 공원, 광복로 일대, 동구 영가대 등



1

2

1. 거리 퍼레이드  
2. 학술심포지움

도심 속 문화쉼터,  
도시철도 온천장·수정역 북 하우스 오픈

현재 연산동역, 덕천역, 중앙동역에 운영 중인 세 곳의 북 하우스에 이어 지난 6월 20일 2호선 수정역과 1호선 온천장역에도 북 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으로 800여 권의 도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행사일시 2012년 6월 20일  
행사장소 부산도시철도 수정역, 온천장역

1

2

1. 온천장역 북하우스 오픈식  
2. 수정역 북하우스 내부 전경



부산문화재단 임직원 29명,  
전남문화예술재단 및 광주문화재단 방문

동남권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문화재단 임직원 29명은 지난 6월22일과 23일 양일간 전남문화예술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과의 협약식에 이어 광주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좌담회'와 광주의 다양한 문화공간 탐방,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 개막작 관람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지역 재단간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로 지역문화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일시 2012년 6월 22일 ~ 6월 23일  
행사장소 전남도립도서관, 광주전통문화관, 아시아문화마루, 광주시내 일대



1

2

1. 전남문화예술재단 협약식  
2. 광주문화재단 좌담회



# 맥주의 본질은 거품이다.

권유리아

문화평론가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김빠진 맥주라는 말이 있다. 뚜껑을 딸 때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거품이 없는 맥주를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는 맥주의 마알간 액체보다 흘러내리는 하얀 포말에서 쾌감을 느낀다. 맥주의 본질이 거품에 있다는 말이다.

문화의 본질도 거품에 있다면 억측일까. 문화는 치열하게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향유하는 것이다. 커피마니아들은 60ml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기꺼이 감수한다. 로스팅한 원두를 갈고, 탬핑을 하고, 머신에 물을 붓고, 작은 찻잔을 데우고, 추출을 하는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즐기는 것이다. 동전만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커피에서 문화를 논하지 않는 이유는 거품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를 누린다는 말이 이러한 불필요한 형식들을 향유하는 것이라면, 결국 ‘문화의 본질은 거품’이다.

문화의 본질이 거품이라는 말은 ‘과정의 스토리’가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음악평론가는 음악을 평론한다기보다 희귀음반을 구하러 세계 곳곳을 헤매고, 오디오 장비를 구비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을 누린다. 음악 그 자체보다 오디오 장비 구입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큰 데에서 즐거운 누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의 거품 즉, 자기만의 은밀한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마니아(mania)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계절 부산의 문화계는 지나치게 ‘거품을 뺐다.’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음악제, 부산국제무용제, 부산국제모터쇼, 부산국제화랑미술제, 세계해양포럼 등 많은 문화행사들이 거창하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국제’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전면내걸고 있다. 문화컨벤션산업의 메카 벡스코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래 있던 벡스코에 제2벡스코와 시립미술관까지 연결된 이른바 문화클러스터는 물리적 접근성은 증가했지만 이 거대함으로 인해 오히려 심리적 접근성은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위로부터 기획된 거창한 규모의 문화행사들은 그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를 지워버린다. 편리를 위해 작은 이야기를 덮어버린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문화보다는 산업, 사람보다는 자본 논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부산의 오페라하우스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꺼내자니 참 딱하다. 오페라하우스 기획의 진원지가 롯데이고, 귀가 솔깃한 부산시와 관련 단체들의 맞장구로 시작되었다면, 분명 문화적 마인드보다는 산업적 마인드가 우선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뒤늦게 시민공청회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롯데가 1,000억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본전 생각 안 할 리 없을 테고, 나머지 돈은 오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일방적 문화정책에는 스토리가 없다. 무엇보다 온 매체들이 오페라하우스, 국제행사와 같은 대규모 기획에만 기사가 쏠리면서 스토리가 있는 올망졸망한 문화행사는 외면되는 사정이 더욱 딱하다.

반면, 반송 느티나무도서관에는 눈물겨운 스토리가 있다. 도서관 건립은 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벽돌 한 장 기금조성으로 가능했다. 도서관의 전 영역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이뿐인가. 화명동 맨발동무도서관, 금정구 금샘도서관, 생활문화공간 통(tong), 다시 시동을 건 헤세이티와 그 주변의 무명 화가들의 아틀리에. 여기 공간들은 ‘자발(自發)’이라는 문화의 속성에 걸맞게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기획된 문화행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단한 이야기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갖고 있다.

부산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말이 이제는 두렵다.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누군가를 외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문화그룹을 꿈꾸는 기획들은 이 쓸림현상으로 작은 단체의 행복한 이야기들을 앗아가기 마련이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무조건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확장은 무엇인가를 잠식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계에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한계 안에서 살을 찌우는 것이 더 절실한 일이다. 다른 영역이 ‘너머’를 꿈꿀 때, 문화는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이라는 말의 의미도 사실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가?

문제는 ‘어디까지 보는가’이다. 하나의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왜 말하고 있지 않는가’는 더 중요하다. 시선을 대규모의 기획의 화려함에 고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단한 이면을 볼 것인가의 차이는 크다. 신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멋지게 조성된 여러 개의 공원, 초고속 교통망, 깨끗한 주거단지의 이면에는 보상금을 받고 밀려난 동네 원주민들의 눈물이 있음을 생각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박물관의 시초가 식민지 약탈을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것처럼, 신도시가 물어버린 그들의 오랫동안 이어온 동네이야기는 대규모 기획의 허상을 잘 보여준다. 큰 규모와 문화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문화와 문화의 기획이 상관관계이지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것의 가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때 진정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계를 돌파하려는 문화산업의 치열성은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에게 목을 맨다. 부산의 문화행사에 유독 ‘국제’라는 타이틀이 혹처럼 붙어있는 것은 그만큼 부산문화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쉼 데 없는 거품이 있을 때, 그 문화가 우리의 것이라고 선뜻 동의할 수 있다.

**맥주의 참맛은 거품에 있다. 거품이 맛있어야 맥주가 맛있다. 문화도 맥주처럼 거품이 있을 때 진정한 누림이 있다. —**



## 공감 그리고—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해 구·군 문화회관, 미술관 및 대형서점 등에 배포됩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http://www.bscf.or.kr))에서 e-book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12-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4층  
T(051)745-7707 F(051)744-7708 [www.bscf.or.kr](http://www.bscf.or.kr)

